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관습의 재구성:

이디스 워튼의 『그 지방의 관습』 과

『순수의 시대』 를 중심으로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허녕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세기 미국 소설가 이디스 워튼의 두 작품 『그 지방의 관습』과 『순수의 시대』에서 드러나는 관습의 역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워튼에 대한 그간의 비평들은 주로 작중 인물들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관습이 부차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공동체 관습이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적 계약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을 끊임없이 재정의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전복성을 허용하고, 관습에 저항하던 구성원이 그 가치를 이해하게끔 하는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19세기 말 20세 초 뉴욕 상류 사회 관습이 포섭과 회유를 통해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는지 분석한다.

본론 1장은 관습이 사회적 기준의 주도 면밀한 조작을 통해 뉴욕 사교계를 견고하게 유지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언딘은 새로운 공동체에 침입하는 수단으로 결혼 관습을 활용한다. 언딘은 남녀 분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결혼 관습을 역이용하여 남녀 구분의 관습을 위협하는 전복성을 발휘한다. 뉴욕 공동체는 언딘을 배제시키는 대신 언딘의 일탈을 사회적인 성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언딘의 전복성을 포섭한다. 언딘의 이야기를 성공신화로 만들고 그의 욕망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면서

관습은 기존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낸다.

본론 2장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을 선별하는 관습의 노력을 조망한다. 엘렌은 고향이 주는 안식을 찾아 뉴욕으로 돌아왔지만, 뉴욕 사회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데도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엘렌의 예외적인 상황은 공동체의 평화에 위협을 가져온다. 관습은 엘렌이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면서도 관습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에게 '외국인'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외국인이라는 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엘렌은 결국 뉴욕 사회를 떠나게 된다. 메이의 곁에 남은 아처는 엘렌이 뉴욕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구성원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관습의 지속적인 가치를 깨닫게 된다.

워튼은 『그 지방의 관습』과 『순수의 시대』를 통해 19세기 후반 뉴욕 사회 관습이 생명력을 잃은 불문율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관습은 구성원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저항에 유연하게 반응한다. 『그 지방의 관습』과 『순수의 시대』에서 드러난 관습의 역동성은 구성원의 자유를 허용하는 듯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데 그 영향력을 더할 뿐이다.

**주요어** : 이디스 워튼, 그 지방의 관습, 순수의 시대, 관습, 전복성, 순수, 공동체

**학번** : 2015-20057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II. 『그 지방의 관습』 : 결혼 관습에서 전복성 발견하기 .....	11
1. 남녀 구분 관습의 전복성 .....	11
2. “결혼할만한 여자”로서의 언딘 .....	19
3. 언딘의 전복성을 허용하는 관습 .....	29
III. 『순수의 시대』 : 순수를 지켜내는 관습 .....	41
1. 순수한 아처의 관습적 결정 .....	41
2. 관습을 위한 엘렌의 희생 .....	46
3. “관습적인” 메이의 순수 .....	59
IV. 결론 .....	73
Works Cited .....	76
Abstract .....	81

# I. 서론

객관성과 정확한 관찰을 특징으로 하는 리얼리즘 문학에서 관습은 인간사를 이해하는 주요 열쇠나 작중 인물을 구체화하는 시대적 특징으로 여겨져 왔다. 관습을 포함해 사회적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리얼리즘 문학이 대중화되던 시기 자연주의 문학의 등장은 단단하고 고정적인 외부적 힘으로 관습을 정의하는데 일조해왔다. 20세기 미국 소설가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은 일상적인 소재를 낭만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작가 혹은 자연주의 작가<sup>1</sup>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인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습을 활용하는 리얼리즘이나 인간을 좌절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관습을 제시하던 자연주의와는 다르게, 워튼은 인간의 삶에서 관습이 갖는 의미를 확대하고 관습에 내재되어 있는 역동성을 포착한다. 본 논문은 작품 분석을 통해 워튼의 작품에서 관습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사회적 원칙으로 제시되며, 그 과정에서 전복성과 변동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역동성을 발휘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워튼은 관습이 지니는 다각적인 측면을 제시하기 위해 『기쁨의 집』(*House of Mirth*, 1905)이나 『순수의 시대』(*The*

---

<sup>1</sup> 캠펠(Donna Campbell)은 워튼의 소설이 “구속, 감금, 노력 등 자연주의적 테마를 포함” (her fiction includes naturalistic themes of imprisonment, confinement, and struggle; Campbell 353)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파이저(Donald Pizer)는 워튼이 “사회적 코드와 금기에 여성을 가두는 주요 테마” (central theme of the entrapment of women within social codes and taboos; 14)를 차용해서 독자들이 사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14).

*Age of Innocence*, 1920)와 같은 주요 작품의 소재로 관습을 활용하며, 『그 지방의 관습』(*The Custom of the Country*, 1913)에서는 관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작품의 제목에 사용하기도 한다. 워튼은 미국, 그 중에서도 뉴욕 사회의 관습을 주요 소재로 활용해왔지만 그 스펙트럼은 결혼 관습에서 공동체 관습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여왔다. 터틀턴(James W. Tuttleton)을 포함한 비평가들은 워튼을 풍속소설(novel of manners) 작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평적 흐름은 풍속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제시한 터틀턴에서 시작된다. 그는 『미국의 풍속소설』(*The Novel of Manners in America*)에서 풍속이 결혼식 예법이나 정찬 예절에 관한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정 시대·장소의 특정 사회 공동체의 풍속, 관습, 전통을 보존하고 분석하기 위한 하위 장르로 풍속 소설을 정의한다(65). 풍속소설에 대한 터틀턴의 정의를 확장한 린드버그(Gary H. Lindberg)는 워튼이 어떤 면에서 풍속소설 작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 그는 풍속소설이 인습으로 이루어진 부적절한 사회와 이에 저항하는 개인을 그려낸다고 분석하면서, 워튼의 소설에서 자아와 사회가 각각의 주장을 합의하기 위해 만나는 장으로 관습이 제시된다고 주장한다(Lindberg 240). 이처럼 워튼을 풍속소설 작가로 평가하는 시각은 관습을 통해 사회와 개인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려내고자 한 워튼의 시도에 주목한다.

워튼이 미국 사회의 관습을 재현하는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는 비평은 그가 인류학자적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는 주장과

연계되기도 한다. 마체스키(Cecilia Macheski)는 워튼과 풍속소설의 연관성을 제시하면서 풍속소설이 인류학이나 사회학의 하위 분야는 아니지만 풍속소설 작가들이 관찰, 인터뷰, 공예품 수집을 통해 문화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인류학의 연구 방법을 빌려왔다고 주장한다(346). 루이스(R. W. B. Lewis)는 워튼이 당시 사회상을 그려내는데 몰두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워튼이 언제나 인류학에 중독” (Edith Wharton, always addicted to anthropology; 432) 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워튼이 글쓰기를 통해 표현하는 관습이 불안정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은 인류학 연구 주제로의 관습과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19세기 러시아 인류학자인 비노그래도프(Paul Vinogradoff)는 “정교한 장치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상황에 맞춰 생겨난 편리한 합의” (not as cunning devices, but as convenient arrangements between people brought together by circumstances; 34)로 관습을 정의해왔으며, 영국 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는 관습을 생기 없고 딱딱한 “껍질” 혹은 “덩어리”로 보는 관점이나 관습을 외부에서 엄격히 가하는 압력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122-3).

워튼의 관습을 문화인류학<sup>2</sup>적 측면에서 접근한 벤틀리(Nancy Bentley)는 『풍속의 문화인류학』 (*Ethnography of Manners*)에서

---

<sup>2</sup> 문화인류학(ethnography)은 인류의 생활 및 역사를 문화면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며, 미국에서는 문화인류학으로 지칭하고 유럽에서는 민족학이라고 부른다. ‘민족’이란 피부색이나 얼굴형 등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구분되는 인종과는 다르게 경제나 정치 등의 사회제도, 종교, 예술 등 사회적인 특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인간 집단을 의미한다(이정우 49).



워튼이 19세기 미국 사회를 세밀하게 재현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재현방식이 인류학적 관점에서 문화인류학자(ethnographer)의 연구방식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개인화되어 신체에 흡수된 사회적 습관과 예의범절로 관습을 정의한 벤틀리는 인간을 “관습<sup>3</sup>의 주체”(subject of manners)라고 정의한다. 이는 개인이 관습의 지배 하에서 형성되고 통제된다는 개념으로, 관습이라는 외부적 힘에 의해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기도 하고 분해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벤틀리는 워튼의 소설에 드러난 관습을 단순한 공동생활양식으로 치부하지 않고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틀로 제시함으로써 관습을 재현하는 워튼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그는 워튼이 관습을 “예의범절의 내재적 기준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 통합과 처벌의 필수적이고 연출된 관례”(manners as the essential, sometimes disguised, rites of social cohesion and punishment rather than as inherent standards of propriety; 2)로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뉴욕 사회의 구성원들을 “민족”으로 정의하고 인간이 관습을 습득하는 것을 생물학적 인간이 민족성을 구축하는

---

<sup>3</sup> ‘풍속’(manners)과 ‘관습’(custom)은 영어로는 다른 단어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관습’으로 통칭할 예정이다. 앞서 풍속소설(novel of manners)을 번역할 때에는 문학사적 전통에 따라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문학 용어를 사용했으나 워튼의 작품에서는 두 단어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매너’(manners)는 한국어에서 ‘예의범절’이나 ‘풍속’으로 번역되어 왔으나, 예의범절은 단어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풍속(風俗)의 한자 뜻을 살펴보면 ‘세상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벤틀리가 주목하는 워튼의 ‘매너’는 개인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 불확실한 사회적 요소라는 점에서 관습에 더욱 가깝다. 이에 논지의 통일성을 견지하고 의미의 뚜렷한 전달을 위해 관습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과정으로 읽으려고 시도한 벤틀리의 분석은 자아를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치는 관습의 속성을 강조한 해석이다. 위튼을 문화인류학자로 읽으려고 한 벤틀리의 분석은 문화로서의 관습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관습의 개인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사회학에서는 관습의 구조적 측면에 역점을 두어 관습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은 위튼이 관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보다 구조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그는 아비투스를 “지속적이고 변환 가능한 성향의 체계이자 구조들을 구조화하도록 예정된 구조화된 구조”(habitus, systems of durable, transposable dispositions, structured structures predisposed to function as structuring structures; Bourdieu 53)로 정의한다. 아비투스는 사회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윤희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조화하는 구조” 이면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공동체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화된 구조”이다. 부르디외는 관습에 대한 논의를 아비투스 개념으로 발전시켜 실체로서의 사회가 관습의 틀을 거쳐야만 비로소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아비투스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무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아비투스를 재생산한다(Bourdieu 91). 아비투스에 대한 부르디외의 설명은 관습을 단순한 공동체 사회의 도덕적 규범이나 제도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과 관습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지 탐구했다는 점에서 관습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권력에 대한 푸코(Michel Foucault)의 분석은 영구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관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푸코는 가시성(visi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판옵티콘(panopticon) 체제에서는 개인이 자동적으로 권력 관계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언제 어디서나 감시되고 있다는 긴장감에서 시작된 권력은 사회적 기능에 교묘히 스며들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기능의 효과를 증대시킨다(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202-4). 푸코는 더 나아가 권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자 결과물로 담론을 제시하면서, 담론이 불안정하기에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대항적 전략의 시발점이자 저항이 생산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101).<sup>4</sup> 푸코의 권력과 위튼의 관습이 유사하다고 가정할 때, 권력에 대한 푸코의 이러한 분석은 위튼이 그려내는 관습이 심층적이고 복합적이기에 전복과 저항이 가능해지는 “틈”이 생겨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인류학·민족지학·사회학적 관점에서 관습을 분석하는 이러한 시도는 위튼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기존 문학 비평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위튼이 관습을 다각적인

---

<sup>4</sup> 푸코는 담론이 권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주장하지만 “저항 지점이자 반대되는 전략을 위한 출발점”(a point of resistance and a starting point for an opposing strategy)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담론은 권력을 강화하면서도 “약하게”(fragile) 만드는 수단이다. 권력을 수행하는 통로인 담론이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권력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권력이 이러한 미시적 차원의 저항을 예상하고 포섭함으로써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이다(101).

측면에서 그려냈던 만큼 워튼의 관습에 대한 비평가들의 연구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워튼이 관습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양분화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왔다. 기존 비평에서는 워튼이 관습을 과거의 유산으로 여겨 긍정하거나,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의 틀이라고 여겨 부정하는 태도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그랜트(David Grant)는 워튼의 작품에서 관습이 연속성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믿음을 드러내기에 개인을 성장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86), 워튼이 작품에서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습을 제시한다고 판단한 쉬라이버(Mary Suzanne Schriber)는 개인이 사회 전통<sup>5</sup>의 힘과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하면 전통이 삶에 대한 이해를 대신하게 되며 더 나아가 삶 그 자체를 대신하게 되기에 개인은 항상 자신을 제약하는 전통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200).

그러나 이처럼 워튼이 관습에 대해서 고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비평은 워튼의 일관성을 강조할 수는 있을지언정 작품에서 암시되는 관습의 복합적인 면모를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깁슨(Mary Ellis Gibson)을 포함한 비평가들은 관습의 양가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관습에 대한

---

<sup>5</sup> 쉬라이버는 관습(custom, convention)과 전통(tradition)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를 혼용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전통은 사회 공동체에서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여겨져 통시적으로 전수되는 생활양식이고, 관습은 공동체 내부에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양식이라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쉬라이버는 공동체 내부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합의되고 존중된 공통의 생활양식을 지칭하는 단어로 전통과 관습을 혼용한다. 본 논문은 쉬라이버의 논지를 이어받아 전통과 관습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

논의를 확장시켜 왔다. 김슨은 워튼이 행동 반경을 제약하는 구 뉴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도 도덕적인 인물을 강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연속성과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평가한다(57). 올프는 워튼이 관습에 대해서 양가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김슨의 주장을 발전시켜 워튼이 관습을 인식하는 방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올프는 워튼이 전쟁 이전에는 관습을 검열과 배제의 산물로 여겼지만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통의 의의를 깨닫게 되었으며 개인의 자아는 관습을 모체로 한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주장한다(261-6). 이러한 비평은 관습에 대한 워튼의 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데 성공해왔으나 워튼이 그려내는 관습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워튼이 묘사하는 관습 공동체는 결코 견고하지 않다. 관습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존재하며,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습이 충돌하게 될 때 관습은 여지없이 개인의 이익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작품 내부에서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관습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부르디외와 푸코의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습으로 명맥이 유지되는 공동체에서 미세한 전복과 저항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한 워튼은 그러한 전복과 저항이 관습이 유지되는데 역이용되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의도적으로 전복성을 허용하는 공동체를 묘사한다. 워튼은 구 뉴욕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 애정을 지니고 묘사하지만, 뉴욕 사회의 관습이 개인을 옥죄는 제약이자 개인에

의해서 활용되는 도구로써 이용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워튼은 관습이 공동체 유지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관습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사회는 변화하지만 관습의 가치는 잔존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본론의 1장은 워튼의 1913년 작 『그 지방의 관습』을 중심으로 당시 미국 사회의 결혼관습에 대해서 탐구한다. 여주인공 언딘 스프래그는 네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 한 번의 결혼 무효를 통해 결혼 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인물이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결혼 제도에 회의를 느낄 법도 하지만, 언딘은 오히려 결혼 제도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인다. 언딘은 관습의 희생자라기보다는 관습의 허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전용하는 인물이며, 이는 세 번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드러난다. 언딘은 여성의 경제 이익 추구가 허용되지 않는 결혼 제도를 역이용해서 부와 지위를 획득하는 전복성을 드러낸다. 언딘은 랄프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남녀구분의 관습을 넘어서 랄프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레이몽과 모팻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상품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사업자로 변모함으로써 남성의 성 역할을 수행한다. 워튼은 여성에게서 주도권을 빼앗는 제도처럼 보이는 관습이 여성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역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전복 가능성이 관습의 틀을 헤집고 비어져나오는 과정을 그려낸다. 이러한 언딘의 행보가 가능한 이유는 언딘 개인이 뛰어난 처세술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저항과 전복을 허용함으로써 결혼 제도를 유지하려는 관습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 다루게 될 작품인 『순수의 시대』는 공동체 관습을 소재로 삼아 언딘이 발휘했던 전복성이 축적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관습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말 구 뉴욕 사회 출신인 주인공 아처는 기존 관습을 존중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습이 그토록 지켜내려고 했던 사회가 너무도 쉽게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인물이다. 아처는 언딘과 달리 관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물이 아니라 메이와 엘렌이 관습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지켜보면서 시대가 변화하는 양상을 목도하는 관찰자적 인물로 등장하기에, 아처야말로 언딘이 보여준 관습의 전복성이 어떻게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지 객관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 지방의 관습』과 『순수의 시대』는 관습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언딘과 엘렌, 메이를 통해 항상성을 지향하면서도 결국 변화하는 관습을 보여준다. 언딘은 결혼 관습을 전용하면서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은 욕망을 달성하며, 아처는 엘렌의 희생과 메이의 죽음을 간접 경험하면서 관습이 지켜내는 순수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언딘과 아처는 관습이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허점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본 논문은 전복성과 일탈을 전략적으로 허용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관습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뉴욕 사회의 관습에 대한 위튼의 시각을 새로이 제시하고자 한다.

## Ⅱ. 『그 지방의 관습』 : 결혼 관습에서 전복성 발견하기

### 1. 남녀 구분 관습의 전복성

“언딘은 이 시스템의 괴물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결정체입니다” (she’ s a monstrously perfect result of the system; 166).<sup>6</sup> 루빈(Larry Rubin)이 『그 지방의 관습』의 조연 인물이면서 작가 워튼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평했던 찰스 보웬은 작품에서 주인공 언딘을 이렇게 평가한다(188). “미국 결혼의 전반적인 문제” (the whole problem of American marriages; 163)의 원인으로 보웬이 지적한 이 “시스템”은 미국 사회를 운영하는 관습을 의미한다. 보웬은 이 시스템이 미국인이라는 “호모 사피엔스, 아메리카누스” (homo sapiens, Americanus; 164)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인들이 자신의 부인을 내려다본다는 사실” (The fact that the average American looks down on his wife; 163)을 결혼 생활의 약점으로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웬은 미국 남성들이 “여성이 삶이라는 진짜 사업을 공유할 수 있게” (let her share in the real business of life) 하거나 “심각한 일을 처리할 때 여성의 판단과 조력에 의존” (rely on her judgment and help in the conduct of serious affairs)하지 않는다고

---

<sup>6</sup> 번역은 정혜옥·손영희 역의 『그 지방의 관습』(2014)을 참조하여 필자가 직접 번역하였다.



서술한다(164). 보웬이 지칭하는 관습은 미국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분리하고 남성에게 사업이라는 공적 영역을, 여성에게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할당하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그 지방의 관습”(the custom of the country)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관습의 궁극적인 결과물이 바로 언딘이라고 결론짓는다.

보웬에 의해 “미국의 오랜 전통”(the old American tradition; 164)으로 지칭된 이 관습은 19세기 말 미국 사회에서 만연했던 남녀 분리주의(separatism)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분리주의는 남성과 여성의 활동 영역이 분리되어 있으며, 성별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성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남녀 구분의 관습을 의미한다. 블로흐(Ruth H. Bloch)를 비롯한 비평가들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남녀 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관습이 자리잡게 된 원인으로 미국의 경제 발전을 제시한다. 300년에 걸친 미국 내 성 역할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 블로흐는 가정에서의 경제적 생산이 줄어들고 집안일이 상업적 가치를 갖지 않게 되면서 여성의 영역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남성이 혼자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중산층 가정에서 여성이 가정에 헌신하는 역할을 맡는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강조한다(246). 웰터(Barbara Welter) 또한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원인으로 산업혁명을 제시하면서 분리주의 관습의 원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찾는 블로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9). 미국 빅토리아 조 여성 노동자의 역사를 연구한 하트만(Mary Hartman)은 웰터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1890년대 백인 기혼 여성이 일하는 비율은 전체 기혼 여성의 2.5%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20세기가 되어서야 기혼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노동하는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120-2). 이상의 연구는 남녀 영역 분리의 관습이 남성에게는 경제적 영역을, 여성에게는 가정의 영역을 할당하는 관습을 의미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밝힌다.<sup>7</sup>

19세기 말 미국에서 공적 영역이 남성에게, 사적 영역이 여성에게 속하는 관습에 따라 클럽과 사무실이 남성의 공간이 되었고, 교회와 가정은 여성의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관습의 연장선에서 남성이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여성은 가정이 그에게 위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성역’ (sanctuary)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센터멘탈리즘 문학 분석을 통해서 19세기 미국 가정이 성 역할 수행에 어떻게 기능했는지 연구한 켈리(Mary

---

<sup>7</sup> 가정이 여성에게 적합한 영역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결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1910년 인구 조사자료에 따르면 1860년대 출생한 여성들 가운데 기혼자 비율은 90%에 달했다(Hartman 120). 결혼하는 부부가 늘어났으며 결혼을 거부하는 인구의 비율도 줄어들었고 남녀 양측에서 초혼 연령이 내려갔다(Bentley 161). 1871년부터 1911년까지 40년 동안 미국 결혼 시장의 성향을 분석한 허만(Sondra R. Herman)은 당시 결혼을 권장하는 책(marriage guidebook)이 유행했으며, 성인 남녀의 결혼이 사회 질서의 기반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을 밝힌다(236). 허만에 따르면, 결혼을 기본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가 형성되었던 이유는 다면적으로 찾을 수 있다. 결혼을 종교와 접목하는 관점에서는 결혼을 “인간 삼위일체” (human trinity)의 실현으로 보아 여성, 남성, 아이로 이루어진 삼위일체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출산과 번식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켜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236). 윤리적 측면에서는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여성이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가정의 도덕적 기반이 되어 사회 전체를 통합된 공동체로 발달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238),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성이 생존하기 위해서 결혼으로 맺어진 가정에 피부양자로서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Kelley)는 남편이 가족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동안 아내는 가정을 다스리는 것으로 성 역할이 분화되어 있었음을 밝힌다(436). 당시 미국 여성들은 아이들의 모범이 되고 남편을 격려하는 일꾼으로서의 여성상에 부응하도록 요구되었다(436-7). 허만은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면서 남편의 성공은 가정의 경제적 부와 연관되고 아이의 성장은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기에 남편과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성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Herman 238). 19세기 미국 여성에게 요구되던 역할을 분석한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미국에서 성별에 따라 성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 또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남녀에게 적합한 영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성 역할이 부여된다는 남녀 구분의 관습이 지배적이던 사회 분위기에서 초기 여성운동(first-wave feminism)이 시작되었다. 여성 참정권 획득을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면서 시작된 여성운동은 기존 사회 관습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급진적 노선을 취하지 않고 관습이 요구하는 성 역할을 수용하는 우회적 노선을 취했다. 제인 아담스(Jane Addams)는 1889년 헐 하우스(Hull house)를 설립하고 공동 육아·조리·교육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하자는 주장을 제시하면서도 기존의 남녀 구분 관습을 반영하는 발언을 해왔다.<sup>8</sup> 여성의 권익 증진을

---

<sup>8</sup> 아담스는 『민주주의와 사회 윤리』(*Democracy and Social Ethics*)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아들보다 딸이 가족

위해 여성 운동에 참여했으면서도 기존 관습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던 당시의 경향은 단편 「노란 벽지」(“The Yellow Wallpaper”)의 저자이자 사회 개혁가로 활동했던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길먼은 『여성과 경제학』(*Women and Economics*)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원인으로 경제력을 제시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여성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성과의 결혼뿐이라고 주장했다.<sup>9</sup> 길먼은 성차별주의에 대해 반대했으나,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길먼은 남성과 여성의 철학과 종교가 본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으로 삶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남성에게는 투쟁, 갈등, 경쟁을 위한 경제적 원칙이, 여성에게는 성장, 문화, 개선을 위한 양육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담스와 길먼이 초기 페미니스트로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남녀

---

을 돌보는 성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훈련되는 현실을 비난하면서도,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딸을 교육할 때 아이의 사회 관계를 가족 내부에서의 개인 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아이가 가족과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점을 교육해서 여성의 잠재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한다(71-101).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가 지적하듯이 아담스의 발언은 가정에서 주어지는 여성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남성의 영역과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의 영역으로 나뉘어진 백인 중산층 핵가족의 전형을 재생산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46).

<sup>9</sup> 길먼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세상”(there is the same world)이 주어진다고 하면서도 여성이 갖고 싶은 모든 목표는 단 하나의 통로와 단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through a small gold ring). 또한 결혼을 통해 “가정, 행복, 평판, 웰빙과 즐거움, 일용할 양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길먼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남녀 구분의 관습이 반영된 방식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을 바랐다는 점을 보여준다. (71)

분리의 관습을 수용하면서 여성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만, 여성 참정권 획득 운동이 전개된 양상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 필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참정권 획득 운동의 핵심은 기존 참정권 제도의 철폐가 아니었다. 이는 남성의 기존 투표권을 유지하면서 여성 또한 참정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여성 운동은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존재하는 허점을 이용해서 여성의 권한을 획득하거나 지위를 증진하려고 했기에 ‘전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민감했던 위튼은 1세대 여성운동이 전개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그 안에 전복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파악했을 것이다. 위튼은 이를 파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지방의 관습』에서 언딘이 결혼 관습에 존재하는 틈새를 찾아내 전복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포착하고자 하였다.<sup>10</sup> 위튼은 이 작품을 “또 다른 걸작” (another masterpiece; Lewis 327)이라고 칭했으나, 첫 장편 소설 『기쁨의 집』이나 풀리처 수상작 『순수의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지방의 관습』은 그 어떤 작품보다 관습의 구체적인 특징과 이에 대응하는 개인을 가장

---

<sup>10</sup> 본 논문은 위튼이 1차 여성운동에서 발견되는 전복성을 그려내고자 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만 위튼이 언딘을 시대를 초월하는 페미니스트 운동가로 그려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언딘은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 아니며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미래적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 본 논문의 취지는 19세기 말 미국 뉴욕 사회라는 특정한 시공간의 관습에서 언딘이 어떻게 결혼 제도 내부에서 전복성을 발휘하는지 밝혀내는 것이기에 후세의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 조망하기보다는 시대 내부로 논의를 한정함으로써 해당 시기 뉴욕 사회의 관습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의 씨앗을 찾아내고자 한다.

잘 묘사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관습 중에서도 결혼 관습에 주목하면서, 네 번의 결혼, 두 번의 이혼, 한 번의 결혼 무효를 경험하면서도 결혼 관습을 고수하는 여주인공을 제시한다. 울프를 비롯한 다수의 비평가들은 언딘을 남녀 구분 관습의 “완벽한 결과물”로 진단하는 보웬의 평에 전적으로 동의해왔다(our most reliable guide; Wolff 238). 이러한 비평은 언딘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결말과 맞물려서 언딘이 관습에 완벽히 순응하고 있으며, 결혼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한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언딘은 밀라드 빈치, 엘머 모팻, 애런슨, 포플, 랄프 마블, 피터 반 데건, 레이몽 드 셸이라는 다양한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사회에서 배척되지 않는다. 언딘의 존재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지만, 언딘이 공동체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남녀 구분의 관습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남녀 영역 구분의 관습을 현실화하는 제도적 수단이 결혼이기 때문에, 언딘이 결혼 제도에 집착하는 모습은 그가 남녀 구분의 관습에 집착하는 여성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딘이 철저히 이해 타산의 원칙에 따라 관습에 순응한다는 점에서 그녀는 관습의 허점을 역이용하는 전복성을 지니고 있다. 언딘은 아몬스(Elizabeth Ammons)에 의해서 결혼 시장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사이렌<sup>11</sup>으로 평가되기도 하고(67), 맥도웰(Margaret B. McDowell)에 의해서는 남성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페미니스트라는 평가를 받기도

---

<sup>11</sup> 여자의 얼굴에 새의 몸통을 가진 바다의 님프로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선원들을 바다에 뛰어들게 해 잡아먹었다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존재

한다(529).<sup>12</sup> 이번 장은 앞서 제기되어왔던 언딘에 대한 이전의 평가와 궤를 달리하면서 언딘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여주인공 언딘이 미국 문학에서 갖는 의미가 다양하게 탐구되어온 것에 비해 소설의 제목인 “그 지방의 관습”이 의미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석되어 왔다. 이에 그 관습을 남녀 영역 구분의 관습으로 한정하고, 언딘이 이해 타산적으로 결혼 관습을 따르면서 남성의 영역을 위협하는 전복성을 발휘하지만 결국 관습의 전략에 의해 포섭되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본 장의 주된 목표다.

---

<sup>12</sup> 이외에도 언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워튼의 작품에서 드러난 교환의 개념을 분석하고 언딘을 자본주의자로 제시한 볼로신(Beverly R. Voloshin)은 남녀 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보웬의 시도가 완전히 성공적이지는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언딘은 가정과 시장,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자아와 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102). 워튼이 미국의 사회적 뿌리와 변화 양상을 찾는 장으로 당시 미국 풍습을 활용했음을 주장한 벤틀리는 남성의 책임이라고 여겨졌던 “사업”의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결혼이 미국인의 진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언딘이 이 사업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힌다(Bentley 162). 브루니(John Bruni) 또한 언딘이 결혼을 통해서 주체성(self-agency)를 획득하고 권력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언딘이 공적 영역에 침입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51).

## 2. “결혼할만한 여자” 로서의 언딘

여주인공 언딘은 반짝이는 “장밋빛 금발” (reddish gold hair)를 지닌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된다. 미국 중서부 가상의 도시 에이팩스(Apex City) 출신인 언딘은 뉴욕과 프랑스의 사교계에 진입하는 “침입자” (Invaders; 62)이다. 시골을 떠나 새로운 공동체에 진입하게 된 언딘은 “매우 독립적이면서도 열렬히 모방하는” (fiercely independent and yet passionately imitative; 15) 인물로 묘사되는데, 소설 초반부에 제시되는 이 모순적인 표현은 사회에 대한 언딘의 전반적인 태도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언딘은 새로운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세밀하게 모방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127). 모방하는 본능을 발휘한 결과 언딘은 다른 여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지만(179), 언딘의 모방능력은 언딘이 뉴욕 사교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그녀를 구 뉴욕 사회의 정중앙이 아니라 변두리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언딘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정도로만 관습을 지키며, 뉴욕 사교계의 경계 언저리에 “독립적으로” 머무른다.

지방 소도시 에이팩스를 떠나 뉴욕 사교계에 정식으로 데뷔한 이후 언딘이 처음 획득한 성취는 “구 뉴욕의 젠틀하고 나약한 대표주자” (the gentle and vulnerable representative of the older New York; Lewis 348) 랄프와의 결혼이다. 언딘이 랄프를 만나게 된 시점은 뉴욕 사교계의 “올림포스 신전 입구” (their Olympian portals; 9)에 들어서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던 찰나였다. 언딘은



랄프를 “수줍음을 많이 타고 사교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rather shy, less accustomed to society; 19)으로 기억하고 그를 무시하지만, 마사지사인 히니 부인이 그가 명문가의 자제라고 소개하자 랄프와 결혼한다면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 (people she wanted to ‘go with’ ; 97)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딘과 랄프 중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쪽은 언딘이지만, 언딘은 랄프가 자신을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유도한다. 울프를 포함한 비평가들은 언딘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판매한다고 주장해왔다(Wolff 249). 보다 구체적으로 패터슨(Martha H. Patterson)은 “언딘이 회사처럼 모든 자본 주식을 보유” (Undine is like a corporation in which she owns all of the capital stock)하고 있다고 주장하며(232), 볼로신 또한 언딘이 자신을 자본으로 삼아 증개하고 판매하는 경제 행위를 한다고 평한다(Voloshin 100-1.) 결혼 시장에 매물을 내놓은 상인으로서의 언딘은 자신의 외모를 전시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본래 갖고 있던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랄프의 취향에 맞을지 본능적으로 파악한다. 언딘은 “머리칼을 비추는 빛과 웃는 입술 사이로 빛나는 치아와 목과 어깨의 깨끗한 그림자” (the light on her hair, the flash of teeth between her smiling lips, the pure shadows of her throat and shoulders; 18)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시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약점이 사랑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장한다. 뉴욕 사회의 관습을 잘

알지 못해 정찬에서 “괜찮아요” (I don't care if I do; 27)라는 말만 반복할 뿐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언딘의 무지는 랄프에게도 그대로 전해지지만, 언딘의 포장 전략이 성공한 결과 랄프는 언딘의 한계마저도 매력의 일부라고 생각한다(he was not blind to her crudity and her limitations, but they were a part of her grace and her persuasion; 65). 언딘은 자신의 단점마저도 매력적으로 인식되도록 전환함으로써 자신을 결혼 시장에서 구매할 가치가 있는 “결혼할만한 여자” (marriageable woman)로 만들어낸다.

언딘이 자신을 상품화해서 랄프가 자신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뉴욕 사회의 관습을 따른 결과이다. 허만이 지적하듯이 구 뉴욕 사회에서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은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의존” (Marriageable women were utterly dependent upon men; Herman 247)하고 있으며 남성의 의사에 따라서 결혼할 상대나 시기 등 결혼에 관한 모든 사안이 결정되었다. 언딘이 속한 신흥 부자계급에서는 남녀 간의 영역 구분이 모호하기에 남성이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랄프가 속한 구 뉴욕 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일에 남성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된다.

랄프의 가문에서 그에게 요구되는 사명은 경제활동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신사다운’ 사람이 되라는 불명확한 비전이며, 그의 “현실” (realities)은 책, 스케치, 시와 소설이며 그의 목표는 시적 비전을 글로 표현하는 것뿐이다(59). 다고넷 가문은 랄프가 경제 영역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랄프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결정을 따른다. 다고넷 가문에서는 언딘과의 결혼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결국 랄프의 뜻대로 언딘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구 뉴욕 상류층에서 남녀 구분의 관습이 더욱 견고하게 지켜진다는 점을 입증한다. 언딘은 “이 완벽한 승리가 순전히 자신의 매력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she could ascribe the completeness of the victory only to the effect of her charms; 71), 결혼이 허락된 이유는 남성으로서의 랄프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구 뉴욕 사회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상대적 우위가 인정받아왔음을 보여준다.

언딘이 랄프에게 결혼의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연출하는 장면은 언딘이 이 뉴욕 사회의 관습을 자연스럽게 “모방” 한 결과이다. 그러나 결혼이 진행되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랄프가 아닌 언딘이 실질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랄프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언딘의 아버지 스프래그 씨는 랄프를 언딘의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퇴역군인처럼 연금을 줘야” (to be pensioned like a Grand Army veteran; 99) 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랄프는 신흥 부자계급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사교계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결혼을 주식 거래에 비유하면서 “상류층의 딸들은 침입해 들어오는 자들에게 자신을 팔고, 침입자들의 딸들은 오페라 특별석을 사듯이 남편들을 산다” (the daughters of his own race sold themselves to the Invaders; the daughters of the Invaders bought their husbands as they bought an opera-box; 61)고 표현한다. 클레어가 반 데건에게

팔렸듯이, 랄프는 자신이 언딘에게 팔려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랄프는 19세기 뉴욕에서 결혼 제도가 일종의 매매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언딘이 연출하는 이미지에 속아 자신이 그녀를 결혼 상대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랄프는 언딘의 조야함을 알고 있지만(65), 자신의 문학적 감성이 “언딘의 정신에 새로운 창을 열어줄” (opening new windows in her mind; 118)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랄프는 언딘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천박하고 형언할 수 없는” (vulgar and unspeakable) 반 데건 식 속물주의의 손길이 언딘에게 닿기 전에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함” (virgin innocence)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64). 그 결과 랄프는 바위에 묶인 안드로메다 같은 언딘을 괴물 같은 사교계에게서 구해내기 위해서 언딘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랄프가 “능동적으로” 언딘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동안 언딘은 랄프에게 직접적으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언딘은 “솔직한 태도가 그를 사로잡는 실마리” (frankness was the tone to take with him; 54)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랄프에게 순수하고 진실된 시선을 던지며 반쯤 웃으면서 반쯤은 동경하듯이 랄프의 눈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발그레해지면 수줍어하며 눈길을 떨구는 “솔직하고 단순” 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 주력한다(55-62). 남성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며 결정권을 랄프에게 전적으로

---

<sup>13</sup> 랄프는 자신이 언딘과 결혼하면 언딘에게 가문의 명망을 제공하는 대신 스프래그 씨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자신은 생계 걱정 없이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61).

넘기는 듯 보이는 언딘의 전략이 성공했기에, 랄프는 자신이 결혼 시장에서 언딘을 구해냈다고 믿으며 언딘과 결혼한다.

그러나 언딘이 구 상류층의 관습을 완전히 수용했을 것이라는 랄프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혼 후 언딘이 남성이 경제활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신혼 부자계급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구 상류층에서는 시를 쓰겠다는 랄프의 목표가 받아들여지는 반면 언딘에게는 돈을 버는 대신 시를 쓰겠다는 랄프의 목표가 수용되지 않는다. 랄프가 언딘에게 옷과 보석을 마음껏 사주지 못하자 언딘은 랄프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된다(254). “랄프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수입을 초과하지 않기에(his own [needs] were few, and had always been within his means; 119), 랄프는 경제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왔지만, 옷과 보석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언딘의 소비습관 때문에 생활 전선에 내몰리게 된다. 랄프는 고된 일을 하며 언딘의 지출을 메꾸려고 노력하지만,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돈에 쪼들려서 감히 쉴 수 없” (he was pressed for money and could not risk a break; 245)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랄프가 사업에 매진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면 그 원인에 언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랄프는 폴의 아버지이자 언딘의 남편으로서, 모든 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언딘은 랄프가 다른 남편들처럼 아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비난하며 신혼 부자계급에서 부여되는 성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언딘은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남자를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아넣음으로써 그를 조종하는 힘을 발휘한다. 보웬의 평가에 따르면, 랄프의 이러한 변화와 그 저변에 존재하는 언딘의 영향력은 시대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는 랄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낭만적인 가치들이 모두 전도된 환경에 순응해야만” (but even he has to conform to an environment where all the romantic values are reversed; 165) 한다고 지적한다. 랄프의 구 세계에서는 사회의 중심이 “낭만적 가치” 였다면, 언딘이 속한 신흥 부자계급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사업이다.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여성이 돈과 자동차와 옷을 뇌물로 받는 시스템에서 언딘은 “괴물스러운 정도로 완벽한 결과물” 이다(165). 반면 랄프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기에 언딘이 가하는 사회적 외압에 의해 가련한 “희생자이자 예외” (the victim and the exception; 166)가 되고 만 것이다. 여성의 영역에 머무르는 언딘의 행동이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언딘이 남녀 구분의 관습에 내재되어 있는 전복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활 전선에 내몰리면서도 청렴하고 진실한 거래만을 해왔던 랄프는 언딘을 위해 양심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랄프는 모팻과의 계약이 비윤리적이라는 사실을 감지하면서도 언딘이 신경쇠약을 호소하자 “모팻의 계획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한번만이라도 주머니에 상당한 돈이 들어와 계속되는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if only Moffatt’s project might be realized—if for once he could feel a round sum

in his pocket, and be freed from the perpetual daily strain!; 203-4)라는 생각에서 모팻과의 계약 체결을 돕는다. 결혼하기 전에는 경제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고 “신사답게” 사는 것에 긍지를 갖던 랄프가 언딘의 영향 하에서 돈을 벌기 위해 윤리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언딘은 랄프를 변화시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왔으나 랄프가 자신을 충족시켜주지 못하자 신흥 부자인 반테건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감정이 무르익던 와중에 반테건이 파리로 떠난다는 계획을 밝히자 언딘은 자신도 유럽에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언딘은 유럽에 가기 위해 랄프의 앞에서 “창백하게 조용히 누워 속눈썹 사이로 눈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는” (she lay white and still, tears trickling through her lashes; 203) 모습을 연출한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딘이 유럽에 가야 한다는 대책이 아주 자연스럽게 제시되지만 의사의 제안에 대해 언딘은 “수동적이고 무관심” (passive and indifferent; 204)한 반응을 보인다. 언딘의 유럽행이 결정되었을 때 그녀가 유럽 여행의 세부 사항을 모두 생각해놓고 랄프와 아이의 거처를 결정해놓았다는 사실은 언딘이 건강을 위해 남편을 떠나야만 하는 아내로서의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210).

결혼한 여성 혼자 유럽에 가는 것이 예외적인데도 불구하고 언딘이 이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그녀가 기혼자라는 신분에서 오는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언딘은 구 뉴욕 사회의 관습을 따르면서도 제도를 이용해 실리를 챙기는 전복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지만, 유럽에 머물면서 랄프와의

결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전복성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언딘의 결심은 그녀가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언딘은 “주변 부부들이 쉽고도 빠르게 이혼하고 재혼” (all about them couples were unparing and paring again with an ease and rapidity; 228)하는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랄프가 병에 걸려 자신을 미국으로 소환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언딘은 랄프와의 결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반 데건이 제공하는 “더 큰 기회의 실마리” (a glimpse of larger opportunities; 223)를 발견하게 되었기에 전복성을 포기하고 더 나은 구혼자와의 재혼 가능성에 도박을 걸게 된 것이다.

언딘은 랄프와의 이혼이 반 데건과의 재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혼한 여성으로서의 언딘은 “사교계 공동체의 조직적인 반감” (the organized disapproval of the community; 287)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는 시기에 따라 언딘이 연출하기로 예상되는 여성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랄프와 결혼하기 전의 언딘은 “결혼할만한 여자”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요구되었고, 언딘은 이를 훌륭히 수행한 결과 랄프와의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 “결혼한” 여자로 언딘의 신분이 전환된 시점에서 언딘이 반 데건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아내로서의 장점을 내세워야 했지만, 언딘이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에 재혼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언딘이 랄프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 이혼 수당과 양육권을 쟁취했다는 사실은 언딘이 뉴욕 사회의 테코럼에 어긋나는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한다.



또한 언딘이 랄프의 건강 악화 소식에 무감하다는 사실은 언딘이 아내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결혼한 여자로서의 이미지 연출에 실패했기에 언딘은 반 데건과의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며, 랄프와 이혼하게 되면서 결혼한 여자로서의 지위 또한 상실하게 된다.

언딘은 전복성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신했지만, 반 데건과의 재혼에 실패하게 되면서 자신이 결혼 관습을 벗어난다면 “평가절하된 화폐” (debased currency; 285)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언딘은 자신이 공동체의 경계 그 언저리에서 매우 위태롭게 존재하고 있으며, 결혼 관습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관습의 경계 밖에 내쳐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해하게 된다.

### 3. 언딘의 전복성을 허용하는 관습

반 데건과의 재혼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깨달음을 얻은 언딘은 결혼 제도에 재진입하여 전복성을 발휘할 기회를 노린다. 그 지방의 관습을 선택적으로 습득하고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언딘의 능력은 세번째 결혼 상대인 레이몽 드 셸을 대할 때 빛을 발한다. 언딘은 반 데건을 유혹할 때보다 훨씬 섬세하고 교묘하게 레이몽을 상대로 이미지를 연출해낸다. 언딘은 레이몽이 부르고뉴와 교외 생제르망에 영지를 지닌 구 프랑스 귀족이며 상류층 프랑스인의 매력적인 전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219), 프랑스 상류층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으로 보이려고 노력한다. 언딘은 "타락하지 않은 미국 여성상"에 최적화된 이미지를 연출해서 자신을 결혼시장에 내놓는다(319-21). 또한 언딘은 레이몽이 가문의 전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자신이 불화의 씨앗이 되느니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쳐서 프랑스 상류 가문에 대한 자신의 존중을 드러내는 듯 연출한다(319). 자신이 레이몽과 가문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연출함으로써 언딘은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언딘이 트레작 부인처럼 “프랑스 귀족과 결혼해서 센 강 너머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살았” (married into the French aristocracy, and who led in the high-walled houses beyond the Seine; 227)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딘이 “포기할 수 없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권리” (her inalienable right to ‘go round’ ; 382)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 갈등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언딘에게 돈은 “가끔 지하로 사라지지만 틀림없이 발 밑에서 콧물 솟는 신비하고 변덕스러운 시냇물”(some mysterious and uncertain stream which occasionally vanished underground but was sure to bubble up again at one’s feet) 정도로 여겨지는 반면 레이몽에게 돈은 “개인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 집단을 단결시키는 물질이며, 당장 돈을 쓸 이유보다도 20년 후에 쓰일 돈의 용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가문의 자본”(not the means of individual gratification but the substance binding together whole groups of interests, and where the uses to which it might be put in twenty years were considered before the reasons for spending it on the spot)이기 때문이다(393). 이 원칙에 따르면 돈은 가문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그러나 언딘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당주인 레이몽의 아내인 자신은 돈을 소비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그렇기에 자본이 가문을 위해 사용되면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돈”(all the money I was entitled to; 448)을 잃는 거라 여기는 것이다.

언딘은 자신의 욕망이 번번히 좌절되자 그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 가문의 영역이자 남성의 영역을 침범한다. 레이몽이 언딘의 청구서를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고 선언하자, 언딘은 태피스트리의 가치를 감정하기 위해 파리에서 거래상을 불러들인다(443). 셀 가문의 태피스트리는 루이 15세가 셀 후작에게 하사한 가보이며, 그 역사에 대해서 책이 출판될 만큼

프랑스 상류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상징물이다. 그러나 이처럼 가문에 큰 의미를 갖는 태피스트리를 언딘은 “그 사람들이 가문이라고 일컫는 거대하고 탐욕스럽고 맹목적인 숭배물” (the huge voracious fetish they called The Family; 408)로 폄하한다. 언딘은 태피스트리를 매물로 내놓음으로써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서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판매자로 변모한다. 언딘이 시장에 들어서면서 경제 활동을 주관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은 경제 활동을 남성이 담당하는 남녀 구분의 관습을 침범하고 남성의 성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언딘의 사업가적 면모를 보여준다.

언딘은 레이몽과의 결혼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레이몽과 즉시 이혼하고 첫 남편이었던 앨머 모팻과 재혼한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이혼이 합법화되면서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이혼 경력이 결함으로 간주되었던 미국 사회에서 두 번의 이혼 경력과 전 남편의 아이가 있는 언딘은 결혼 시장에 내놓을 매물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언딘은 또 한번 관습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백만장자가 된 모팻과의 결혼에 성공한다. 모팻이 피터 반 데건처럼 구 상류층 출신의 미혼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음에도 이혼 경력이 있는 언딘과 결혼한 이유는 “소년소녀 시절의 로맨스” (boy and girl romance renewed; 463)를 재개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딘의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언딘은 자신의 비교 우위를 모팻에게 선전하고 자신의 이혼 경력을 강점으로 역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모팻이 자신을 선택하게끔 조종한다.

모팻에게 효력이 있었던 언딘의 일차적인 우위는 빼어난

아름다움이다. 언딘의 외모가 아주 아름답다는 사실<sup>14</sup>은 소설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언딘이 결혼 제도에서 남성을 조종하는 영향력의 근원은 언딘의 아름다움이다. 언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sup>15</sup>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여성이다. 언딘이 더욱 아름다워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교환 가능한 자본으로 여겨 투자하는 방식이다. 언딘은 남성의 재력과 자신의 아름다움이 등가 교환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sup>16</sup>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며, 이를 자본으로 이용해서 남성을 조종하는 힘을 발휘한다. 그렇기에 언딘이 외모를 가꾸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언딘이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는 사실은 모팻이 항상 가치가 최고점에 올랐을 때 미술품을 구입했던 것처럼 모팻과의 결혼 시점에 언딘의 아름다움이 갖는 가치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언딘의 아름다움이 공공연하게 인정된다는 사실은 모팻이

---

<sup>14</sup>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언딘은 뉴욕 사교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존재로 “여성들은 그녀를 돋보이게 하는 화려한 드레스를 부러워하고 남성들은 그녀의 미모를 칭송” (all the women envied her dress, the men did not so much as look at it? Their admiration was all for herself; 181)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sup>15</sup> 언딘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언딘의 궁극적인 무기이면서 모든 계급적 경계를 뛰어넘는 동력이다. 이 무기는 뉴욕 상류층, 프랑스 귀족, 신흥 부자 계급의 패러다임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경계를 초월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언딘이 모팻의 단계에 도달하기 이전에 중간 단계로서 각 계급의 남성들과 결혼했다가 이혼함으로써 각각의 사회적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 언딘의 아름다움이 지닌 가치이자 그녀의 품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언딘의 아름다움이 부각되는 순간은 남성이 언딘의 요구를 들어주는 시점과 필연적으로 맞물린다.

<sup>16</sup> 언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처럼 아름다운 여성을 곁에 둘 때 뛰어난 여성에게 지당하게 바치는 찬사로서 남성이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affluence which was man's natural tribute to woman's merits; 181).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매우 신경 쓴다는 사실과 맞물린다. 모팻이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는 이유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입증하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자제였던 랄프와 레이몽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우아함과 기품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되는 반면 출신 배경이 모호한 모팻에 대한 수식어는 훨씬 거칠고 투박하다. 랄프와 레이몽에 대한 묘사와 모팻에 대한 묘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랄프는 “작고 균형 잡힌 금발” (small, well-knit, fair; 27) 남성, 레이몽은 “몸이 반듯하고 호리호리하며 차분하게 미소 짓는” (straight, slim, and gravely smiling; 217) 남성으로 간결하게 묘사되는 반면 모팻에 대한 묘사에는 훨씬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된다. “언딘은 모팻이 와이셔츠 깃 위로 붉고 살찐 목의 주름이 드러나고 눈은 무례하고 으스스대며 과하게 옷 치장을 하는 저속한 남자라는 걸 아주 잘 알았다” (Undine was perfectly aware that he was a vulgar overdressed man with a red crease of fat above his collar and in impudent swaggering eye; 327)는 표현은 모팻이 타고난 품위를 갖추지 못하고 다소 지나친 옷 치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팻이 값비싼 의복을 입고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입증<sup>17</sup> 하는 것이 일차적이라면, 모팻은 예술품 구입이나

---

<sup>17</sup> 모팻의 사업 성공에 비례해서 그의 옷차림은 점점 화려해지는 것으로 서술된다. 랄프는 모팻이 “더 번지르르하고 더 천박하고 더 비싼 양복을 입었으며, 몸 전체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풍긴” (He was smoother, broader, more supremely tailored, and his whole person exhaled the faintest whiff of an expensive scent)라고 느낀다. 이는 모팻이 자신의 부를 옷차림과 치장을 통해 과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356)

결혼을 통해 상류 사회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한다.

자신의 성공을 공공연히 과시하려는 모팻의 의도는 그가 고가의 예술품을 수집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예술품 구입은 모팻이 훌륭한 작품을 감별할 수 있는 심미안을 갖췄으며 이를 구입할만한 재력을 겸비했다는 점을 증명한다. 모팻이 구매하는 예술품이 판매용이 아니라 개인 소장용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능력은 더욱 과시된다. 사스부르(Ticien Marie Sassoubre)는 모팻이 소장용 예술품을 시장으로 끌어내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서 시장경제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과시한다고 주장한다(696). 신문 기사에서 모팻이 대규모로 미술품을 구입하기 시작한 후로 미술계에서 미술품 가격이 75% 올랐다고 추정된 것은 모팻이 고가의 미술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그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모팻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지표를 여기저기 전시하지만, 그의 성공을 가장 뚜렷하게 입증하는 지표는 아내이다. 베블렌(Thorstein Veblen)은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899)에서 “여성은 트로피 아내로서 부유한 남성의 부를 자랑하는 지위의 지표로 기능” (women serve as “trophy” wives for wealthy men, as index of status; 23-4) 한다고 주장하며, 헵번(Allan Hepburn)은 베블렌의 트로피 아내 개념을 확장해서 모팻이 수집가이자 감정가로서 여성을 장식품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한다(37).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모팻은 예술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언딘을 아내로 선택한다. 이는 모팻이 언딘의 가치를 감정해보고 언딘이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최적의 “트로피 아내”가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언딘이 모팻에게 애인 관계를 제안했을 때 모팻이 이를 거절한 이유는 언딘을 아내로 내세울 수 없다면 언딘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언딘이 선천적인 모방능력을 통해 습득한 “[미국인들이] 짐작도 못하는 것들, 즉 행동의 미묘한 차이, 말투, 태도의 요령” (things they did not guess: shades of conduct, turns of speech, tricks of attitude; 442)은 언딘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모팻이 언딘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언딘의 이혼 경력을 역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언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단점에서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언딘의 이혼에 대한 신문 보도이다. 언딘의 결혼과 이혼은 매번 신문에서 대서특필된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문 보도의 시각인데, 언딘이 직접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도는 언딘의 시각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언딘이 이혼하는 이유는 남편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언딘이 새롭게 재혼하는 남자는 이전의 남편보다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따라서 모팻에게 언딘의 이혼 경력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표지로 기능한다. 언딘이 구 뉴욕 상류층의 자제, 프랑스의 뼈대 있는 귀족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과 재혼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매개로 자신에게 “투기” (speculation; Ammons 87)했던 언딘의 결혼 시도는 성공했고, 그 결과 자신의 몸이 갖는 가치가 높아졌기에 모팻과의 결혼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모팻이 언딘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딘이 모팻을 남편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이들의 결혼은 서로가 상대방의 가치를 면밀히 따져보고 체결된 사업 계약과도 같다. 언딘이 레이몽을 “장식품” (ornamental; 323) 삼아 정찬에 동반했다는 서술이 의미하듯이, 언딘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파트너로 남성을 활용한다. 이제 언딘이 남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돈이 아니며, 사회적 지위도 아니다. 뉴욕 사교계에 처음 입성했을 때의 언딘은 랄프가 다고넷 가문의 자제라는 사회적 지위만을 보고 랄프와 결혼했지만, 랄프와 레이몽을 경험하고 난 후의 언딘은 남편이 재력과 지위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언딘은 모팻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며, 모팻이 자신과 비등한 위치에 올라섰는지 가늠하는데 촉각을 세운다. 언딘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신혼 부자계급이 구 뉴욕 상류층을 대체하게 된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며, 모팻이 “봄비는 테이블에서 드러나는 모든 세계에서 주목 받는 인물이고, 모팻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가리키는 것” (Moffatt was evidently a notable figure in all the worlds represented about the crowded tables, and Undine saw that many people who seemed personally acquainted with him were recognizing and pointing

him out; 442)을 첨예하게 인식한다. 모팻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남성이 되었다는 판단 하에서 언딘 또한 모팻을 남편으로 선택한 것이다.

사업가 간의 계약이 체결되듯 결혼하게 된 언딘과 모팻은 신혼부자계층의 관점에서 남녀 분리 관습을 완성하는 완벽한 파트너이다. 언딘과 모팻은 자본주의식 관습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어린 신부였던 시절부터 언딘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야 한다고 길들여진 버릇없는 아가씨” (only a spoiled girl, used to having everything you wanted; 453)로 제시된다. 모팻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언딘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언딘이 원하는 것을 뭐든 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453). 결혼 후 모팻은 이러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현하며, 이는 앞서 보웬이 언급했던 여성에게 “돈을 퍼붓는” (lavishing; 165) 남성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한 인물이다. 모팻은 결혼 선물로 언딘에게 목걸이와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이 소유하던 진홍색 루비 티아라, 100만달러 수표와 뉴욕에 있는 집 한 채를 준다(464). 결혼 관습이 완벽하게 지켜진 결과 언딘은 더 이상 사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이제 언딘은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고 더 키가 크고 더 화려하게 옷을 차려 입은” (handsomer and taller and more splendidly dressed than ever; 465) 여성으로 군림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언딘에게 잠재되어 있는 전복성은 모팻과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랄프와의 결혼 생활에서 낳은 아들 폴과 언딘의 대화는 언딘이 아직 전복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랄프와 별거하던 시절 3년만에 폴을 되찾은 언딘은 폴과의 재회를 “아주 기분 좋은” (lovely; 380) 일로 표현한다. 언딘은 폴과 함께 있을 때 사랑스럽고 다정한 어머니 이미지를 연출해 자신의 매력을 배가했지만, 언딘이 모팻과 결혼한 시점에서 폴을 활용할 필요성은 사라진다. 폴은 언딘의 얼굴을 보고서야 “정말 다시 집에 왔다고 느끼” (feeling that he was really at home again)면서 언딘을 껴안지만, 언딘은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며 폴과 맞잡은 손을 풀어낸다(465). 이에 폴이 울음을 터트리자 모팻은 폴을 위로한다. “너도 알다시피 네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너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지” (she’s like that, you know; and you and I have got to lump it; 466)라는 모팻의 위로는 남자들간에 오고가는 대화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뉴욕 사회의 결혼 관습에서 언딘은 어머니이자 아내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언딘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 또한 언딘의 남편과 아들은 그러한 언딘의 모습이 이질적이거나 괴물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모팻의 아내가 아니라 모팻과 비등한 위치의 사업가이자 정찬의 주인공으로서의 언딘은 이제 랄프와의 결혼생활에서처럼 남녀 구분의 관습을 지키면서 전복성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역할을 대리 수행함으로써 전복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다.

언딘의 전복성은 그녀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권력가적 면모를 보이는 데에서 더욱 강화된다. 언딘은 “눈부신 광채 아래” (under all the dazzle)에서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루비 목걸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드리스콜

부인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대사 부인의 자리에 완벽하게 적합한 인물이라고 되뇌인다(she said to herself that [an Ambassador's wife] was the one part she was really made for; 470). 언딘의 맹렬한 욕망과 냉혹한 집요함을 알고 있기에 그녀가 목적을 이루고 말 것이라는 랄프의 예감이 적중했듯이(342), 언딘은 마음 먹은 이상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대사 부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어낼 것이며 그 수단으로는 어김없이 남성이 이용될 것이다. 결말에서 보여주는 언딘의 결심은 언딘의 욕망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역시 언딘이 직접 대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사의 부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언딘이 구 뉴욕 관습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전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언딘은 소망해왔던 것을 모두 갖게 되었고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순간에도 “알게 된다면 갖고 싶을 다른 물건들이 있” (there were other things she might want if she knew about them; 468)으리라고 여전히 느낀다. 언딘은 남녀 영역 구분의 관습에 완벽하게 순응한 대가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지만, 아직 충족되지 않은 언딘의 욕망은 언딘이 관습의 테두리 안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언딘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한 남녀 영역 구분의 관습에 순응할 예정이지만, 그의 전복성은 압도되지 않은 채 영향력을 발휘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언딘의 전복성은 그녀가 결혼 관습을 철저히 따른다는 데에서 시작되며, 결혼 관습 내부의 언딘은 관습의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역이용한다. 언딘은 관습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관습을 전락시키지만, 이는 언딘이라는 인물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관습이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뉴욕 사회는 기존의 결혼 관습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언딘의 전복성을 허용한 것이며, 그 결과 언딘이 군림하는 뉴욕 사회에서는 여전히 결혼이 여성의 욕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점은 이를 입증한다.

### Ⅲ. 『순수의 시대』 : 순수를 지켜내는 관습

#### 1. 순수한 아치의 관습적 결정

“아치는 점점 짙어져 가는 황혼 속에서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발코니를 떠나지 않았다” (He sat for a long time on the bench in the thickening dusk, his eyes never turning from the balcony; 298).<sup>18</sup> 이 결말은 워튼의 1920년 작 『순수의 시대』를 읽은 많은 독자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장면일 것이다. 아들 델러스는 아치가 과거에 엘렌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1894년으로부터 26년이 지난 1910년에 아치와 엘렌의 만남을 주선한다. 계단을 오르기만 하면 일평생 “인생의 꽃” (the flower of life; 286)으로 여겨왔던 엘렌을 만날 수 있지만 아치는 자리에 못 박힌 듯 벤치에 앉아있기만 한다(298). 아치의 상상 속 엘렌은 “창백하고 어두운 낮빛으로 재빨리 위를 보고는 반쯤 일어나 반지가 세 개쯤 있는 길고 가는 손을 내미는 어두운 색깔 옷을 입은 여자” (a dark lady, pale and dark, who would look up quickly, half rise, and hold out a long thin hand with three rings on it; 297)이다. 계단을 오르기만 하면 환상 속의 연인으로 존재하던 엘렌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아치는 엘렌을 만나지 않는 걸까? 아치는 그 이유로 “사실”을 제시한다. 아치는 자신이

---

<sup>18</sup> 번역은 김애주 역의 『순수의 시대』(2015)를 참조하여 필자가 직접 번역하였다.

엘렌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만나지 않은 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더 사실적이라고 벤치에 앉아 중얼거린다(It's more real to me here than if I went up; 298). “사실의 마지막 그림자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처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있게 했” (the fear lest that last shadow of reality should lose its edge kept him rooted to his seat as the minutes succeeded each other; 298)다는 서술자의 말은 아처가 사실 때문에 엘렌을 만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아처에게 사실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아처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일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작용할 것이다.

“선사시대 원시인” (prehistoric; 293) 같다는 아들 델러스의 평가처럼, 아처는 변해버린 사회에서도 과거의 관습을 고수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명문가의 외손자인 델러스와 불법 투기를 저질러 뉴욕 사회에서 매장되었던 보퍼트의 딸인 패니 보퍼트의 결혼이 이견 없이 수용되는 1910년의 뉴욕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 (Nothing could more clearly give the measure of the distance that the world had travelled; 291) 준다. 아처의 눈에 비친 요즘 사람들은 개혁이나 운동, 유행이나 물신숭배 그리고 사소한 것들에 몰두해있어 그들의 이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은 “습관과 기억에 사로잡혀 새로운 것들을 낮설어” (held fast by habit, by memories, by a sudden startled shrinking from new things) 할 뿐이다(290).

새로운 사회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아처는 “자신이 빠졌던

깊은 구덩이” (what a deep rut he had sunk; 290)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 자신의 행동을 제약했던 관습의 속성을 탐구하고자 노력한다. 아처가 관습의 “구덩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은 언제나 사회의 관습과 개인이 접촉하는 시점이다. 관습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칠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며, 아처는 두 여성인물인 메이와 엘렌이 관습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관습의 존재감을 깨닫게 된다. 작품 초반부의 아처는 관습적 인물과 비관습적 인물 사이의 경계를 짓고 이에 따라 인물을 독해하는 인물이다. 울프를 포함한 비평가들은 아처가 메이와 엘렌이라는 두 인물을 단순화해서 생각할 뿐 이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Wolff 319). 쉬라이버는 여성 인물에 대한 아처의 관점과 이들의 실제 행동이 “불일치” (discrepancy; 191)한다고 지적하며, 맥도웰은 아처가 벤 더 루이든의 파티에서 엘렌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는 점에서 그녀를 오판하며, 메이가 실제보다 더욱 제한되어 있다고 오독한다고 지적한다(98). 비평가들의 지적처럼, 작품 초반의 아처는 메이와 엘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편견을 투영해서 바라보기에 이들이 관습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채지 못한다.

아처는 메이와 엘렌을 독해하기 위해 이들을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로 상정한다. 아처의 문제는 여성인물에 대한 비평가들의 상반된 평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몬스는 메이를 관습적인 여성, 엘렌은 비관습적인 여성으로 구분하며, 메이를 “가부장적 풍습이 낳은 무상한 결과물” (one the unthinking product of patriarchal



mores)이라고 지칭하면서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성이 집약된 아이 같은 미국 여성” (the American child-woman who epitomizes her era’s ideal femininity)의 대표격이라고 해석한다(151). 아몬스는 메이의 관습에 “대항하는 반항아” (the other a rebel against [mores])로 엘렌을 평가하면서 그녀를 “오래된 결혼과 성의 금기와 결합에 반하는” (rebellious against old marital and sexual taboos, and failing) 인물로 해석한다(148-51). 싱리(Carol J. Singley) 역시 메이가 “관습적인 뉴욕 사교계를 대표” (conventional New York high society, as represented by May Welland)하고 엘렌은 “예술적이고 교화된 유럽스타일을 몸에 익” (more artistic, cultured European lifestyle, as practiced by Ellen Olenska) 했다고 평가한다(501). 이처럼 비평가들이 두 여성을 대척점에 놓는 이유는 관습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아처 역시 메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성” (the woman one loved and respected)으로, 엘렌을 “즐기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여성” (those one enjoyed and pitied)로 구분한다(79). 그러나 엘렌과 메이의 결정은 언제나 아처의 예상을 벗어난다. 아처는 엘렌을 순진무구한 양떼 틈에 끼어든 검은 양이라고 묘사했지만, 아처는 엘렌이 공동체에서 포섭되고 배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뉴욕 사교계가 “순진무구한 양떼” (their blameless stock; 10)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엘렌은 기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나타난 검은 양이 아니라 오히려 뉴욕 사교계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며, 메이는 관습의 조작에 의해 탄생한 인형이 아니라

관습이 뉴욕 사교계를 새하얀 양떼로 포장하는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아처가 끝내 엘렌을 만나지 않는 결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처가 관습과 엘렌, 관습과 메이 간에 존재했던 역동성을 목격하면서 그의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졌음에 주목하고 두 여성인물이 관습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존 비평에서 사회 구성원을 억압하는 규범으로 제시되는 데 그쳤던 뉴욕 사회 관습의 색다른 면모를 규명하고, 관습과 여성 인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변인물인 아처가 어떻게 관습의 순기능을 이해하게 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본 장의 주된 목표다.

## 2. 관습을 위한 엘렌의 희생

작품을 여는 오페라 장면은 아처가 관습에 통달한 인물이며, 동시에 “피상적인 형태의 심미안” (this superficial form of connoisseurship; Cain 96)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처는 딜레탕트로서의 미묘한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테이지 송에 맞추어 오페라 박스에 들어서며, 푸른 에나멜로 모노그램이 새겨진 은 빛 두 개로 가르마를 타거나 꽃을 단춧구멍에 꽂고 사교모임에 나가는 습관이 익숙한 인물이다(4). 아처에게 이처럼 익숙한 사교계의 관습에서 무엇이 “격에 맞는 행동” (the thing; 3)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뉴욕 상류 사회의 두 권위자 로렌스 레퍼츠와 실러턴 잭슨이라는 두 인물의 의견이다. 아처는 예법에 관해서 레퍼츠의 “고견에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 (his authority had never been disputed; 7)다고 생각하며 엘렌이 밍곳 가문의 오페라 박스에 들어섰을 때 그녀에 대한 의견을 성립하기에 앞서 잭슨이 “뭐라고 할지 기다리며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 (turned instinctively, waiting to hear what the old man had to say; 8)린다. 아처가 잭슨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잭슨은 뉴욕 공동체에서 관습에 있어 권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관습이 사익과 맞물리는 지점은 구 뉴욕 사회의 관습을 상징하는 두 인물인 로렌스 레퍼츠와 실러턴 잭슨에게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뉴욕 사회의 관습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는 로렌스 레퍼츠가 수호하는 예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러턴 잭슨이 수호하는

가문이다. 아몬스는 이들이 기존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데 일조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헨리 밴 더 루이든의 법령이 실러턴 잭슨과 로렌스 레퍼츠에 의해서 전파된다고 논한다(Ammons 150). 누구라도 로렌스 레퍼츠를 만나고 나면 그가 ‘격에 맞는 행동’에 대한 지식을 타고난 사람이며, 여유로우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는 비법을 알고 있을 만큼 예의에 대해서 선천적인 지식을 갖추었다고 느낀다(7). 레퍼츠는 “예의범절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제” (the high-priest of form; 36)이며, 결혼의 이상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남편으로 여겨진다(45). 하지만 레퍼츠는 자신의 예의범절을 부정을 가리는 가림막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로렌스는 “아내를 자신의 편안한 삶에 너무나 완벽하게 맞추어” (had formed a wife so completely to his own convenience; 36) 놓고 마음껏 외도를 즐긴다(45). 엘렌의 사교계 입성을 로렌스 레퍼츠가 방해하는 장면은 로렌스가 예의범절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가 엘렌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의 허락 없이 엘렌을 아내에게 소개하려는 시도가 무례하다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실익을 얻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다. 이 당시 레퍼츠는 우체국장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엘렌은 아내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피뢰침”(lightning rod)으로 사용된 것이다(45).

실러턴 잭슨은 뉴욕에 있는 가문의 관계도를 꿰고 있으며, 밍곳 가문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델러스 가문의 관계 같은 복잡한 혈통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다. 또한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각 가문의 치명적인 단점까지 수집하고 있다. 잭슨이 가문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음으로써 얻는 혜택도 레퍼츠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잭슨은 유서 있는 가문 출신이지만 본인과 여동생의 나이가 상당히 많고 가문에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없어서 가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잭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수집가를 방블케 하는 참을성” (the patience of a collector; 27)을 지니고 사교계의 사건을 조사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 결과, 잭슨은 밁곳 가문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들오리 고기와 식용 거북과 최고급 와인” (canvas-back and terrapin and vintage wines)을 맛볼 수 있고, 아처 가문의 집에 초대되어 “희망봉을 돌아온 마데이라 와인” (Maderia had gone round the Cape)을 마실 수도 있다(27-8). 자칫 뉴욕 사교계 피라미드의 하단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교계의 최신 뉴스와 가문의 오랜 역사를 습득함으로써 상류 사회의 권위자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인물은 뉴욕 사회에서 각 항목에 있어서 권위자로 인정받으며, 이들의 판단은 그 사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잣대 역할을 한다. 맥도웰은 레퍼츠와 잭슨이 뉴욕 사회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엄격한 사회가 고유의 전통과 구성원들의 역사를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해 이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뒷이야기를 만든” (The tight society encourages slanderous gossip precisely because it embalm so perfectly its own traditions and the life histories of its members; McDowell 100)라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기존 공동체의 관습을 유지함으로써 일종의 권력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뉴욕 사회에서 권위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권위를 갖는 구조 이면에 공동체 내부에서의 실리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력으로서의 관습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의지를 지니고 발동하는 듯 하지만, 사실 관습은 자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대한 권력이기보다는 개개인의 실익 추구에 따라 이루어진 규칙이다. 구성원들은 관습이 실익을 가져다 준다는 판단 하에서 이를 준수하고, 서로 다른 세력이 부딪히면서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습을 권력화하는 것이다.

치버스, 밉곳, 델러스, 밴 더 루이든 가문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피라미드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문의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들이 레퍼츠와 잭슨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이들이 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퍼츠와 잭슨의 의사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순간 이들이 각 구성원의 실익 추구에 합치되는 때에만 권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밉곳 가문이 엘렌을 사교계에 소개하려고 했을 때 레퍼츠가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사건은 레퍼츠와 밉곳 가문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지 않았던 명백한 시점이다. 만약 레퍼츠가 관습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면 엘렌이 사교계에 입성하지 못했겠지만, 뉴욕 사교계 피라미드의 정점을 맡고 있는 헨리 밴 더 루이든의 허락 하에 엘렌은 사교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는 밴 더 루이든의 통치가 레퍼츠의 도구적 관습을 앞선다는 의미이며, 각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때에만

관습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성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작용하는 관습의 특징은 공동체 내부에서의 인물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성원의 자격을 선별하는데 더없이 엄격할 것 같은 뉴욕 사교계는 맨슨 밍곳 부인, 미도라 맨슨이나 에머슨 실러턴 같은 특이한 인물들이 공동체 내부에 잔존하는 것을 허용한다. 맨슨 밍곳 부인은 뉴욕 사회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 가모장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무도 집을 짓지 않는 40번가 너머에 크림색 석조 건물을 지었고, 방문객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지층에 “간통의 무대” (the stage-setting of adultery)를 연상시키는 침실을 꾸며 “뉴욕인들의 예의범절에 대한 극악한 위반” (flagrant violation of all the New York properties)을 저지르기도 한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밍곳 부인이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통치가 자신에게는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기존 관습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유한 밍곳 가문의 장남과 결혼한 밍곳 부인은 뉴욕 사교계에서 뽑아낼 수 없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다. 명문가에 편입되어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밍곳 부인을 배제한다면 뉴욕 사교계에 거대한 구멍이 생기기에 뉴욕 사회는 그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밍곳 부인이 개인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을지언정 기존 관습을 위협하지 않기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지점에서 부인의 지배가 허용되는 것이다.

밍곳 부인과 유사하게, “뉴포트 사회의 눈엣가시” (a thorn in the side of Newport society; 180)같은 존재인 에머슨 실러턴도 사회에서 포용된다. 사교계 사람들은 실러턴이 도대체 왜

고고학자가 되고 진짜 교수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에머슨이 허용되는 이유는 장발 남자들과 짧은 머리 여성들을 집으로 부르고 고분을 찾아 유카탄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전통을 깨고 사교계를 면전에서 모욕하는” (break with tradition and flout society in the face; 180) 반면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에머슨은 관습적이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기에 뉴욕 사교계의 사람들은 에머슨의 행동을 비난하고 그의 아내를 동정하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 (eccentricities; 180)에 대한 기준을 형성한다. 에머슨의 기행은 공동체의 존속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정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반면교사로서의 존재는 오히려 공동체 질서를 보다 견고히 하는 효과를 낳는다. 밍곳 부인과 에머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뉴욕 사회에서 개인의 기행은 기존 관습을 강화하는 기능이 인정될 때에만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뉴욕 사교계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도 공동체에서 축출되지 않은 채 경계의 언저리에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유럽에서의 결혼생활에 지쳐 뉴욕으로 돌아온 엘렌이 뉴욕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다. 밍곳 부인의 손녀인 엘렌은 폴란드 백작과 결혼했으나,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견디지 못해 비서의 도움을 받아 남편에게서 달아났다. 이러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엘렌을 처음 표현하는 단어는 “메이의 외국 사촌” (her foreign cousin)이다. 메이의 사촌이라고 하기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엘렌의 특징을 표현하기에 부족하고, 폴란드 사촌이라고 하기에는 엘렌이 뉴욕 태생이지 폴란드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사촌”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외국적이라는



형용사가 엘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은 엘렌이 뉴욕 사교계 구성원들에게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외국적”과 “외국인”은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외국적이라는 형용사는 이질적인 특징을 지칭하는 외국성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이러한 표현은 개인이 이질적이지 않더라도 집단의 합의에 의해 이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인식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적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공동체의 기준을 반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뉴욕 사회에서 “외국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명해야 한다. 뉴욕 사교계에서 외국인이라는 점은 일종의 면죄부를 제공한다. 외국인으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줄리어스 보퍼트이다.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뉴욕 사회의 관습에 어긋나는 “불법투기”(unlawful speculations; 213)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를 단죄하지 않을 수 있는 명목을 제공한다. 애초에 그가 공동체의 관습이 권력을 가하는 사정거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보퍼트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것이다.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일종의 면죄부가 된다는 점은 불법 투기를 저지른 보퍼트와 “남편의 치욕을 보호해달라고 호소”(appealing to her family to screen her husband's business dishonor; 224)한 리자이나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 다르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뉴욕 사회의 관습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지른 남자의 아내는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하기에(224), 밍곳 부인을 찾아가 보퍼트의 불명예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기를 청원한 리자이나의 행동은 보퍼트가 저지른 범죄만큼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223), 이 행동으로 인해 뉴욕 사회의 분노는 보퍼트가 아닌 리자이나에게 향한다.<sup>19</sup> 보퍼트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동체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더라도 뉴욕 사회에서 비난 받지 않지만, 뉴욕 출신인 리자이나는 뉴욕 사회의 규범을 선천적·후천적으로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과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보퍼트의 불법 행위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했기에 사회에서 더욱 철저하게 비난 받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에게는 관습적인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벤 더 루이든 가문의 세인트 오스트리 공작을 대할 때도 드러난다. 공작이 엘렌과 함께 스트러더스 부인의 일요일 파티에 참석한 사건은 아처 가문에 파장을 일으키고 헨리 벤 더 루이든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정도로 뉴욕 사회의 안정을 뒤흔드는 일로 간주된다. 스트러더스 부인의 저택에서 열리는 일요일 파티는 여자가 탁자에 올라가서 선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담배도 피우며 샴페인을 마시는 퇴폐적인 모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71). 이 파티의 주최자인 스트러더스 부인이 구두약 공장장의 정부 출신이라는 점 또한 공작과 엘렌의 참석이 문제시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역시 비난의 화살은 외국인 오스트리 공작이

---

<sup>19</sup> 사실 관계를 따지자면 남편의 과오를 덮어달라고 부탁한 리자이나보다 불법 투기를 저지른 보퍼트의 죄질이 더 나쁘지만, 비난의 화살이 보퍼트가 아닌 리자이나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뉴욕 사회의 관습이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엘렌의 경우에도 발견할 수 있듯이 관습의 차별적 면모는 여러 장면에서 드러나지만 이 논문의 주제는 범시적 차원에서 관습의 가부장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뉴욕 사회의 관습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기에 관습의 남녀 차별적 특징에 유념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닌 뉴욕 사람인 엘렌에게로 돌아간다. “공작님은 그의 손님이자 외국인이야. 외국인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 그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니? 올렌스카 백작 부인은 뉴욕 사람이야. 따라서 뉴욕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the Duke’s his guest; and a stranger too. Strangers don’t discriminate: how should they? Countess Olenska is a New Yorker, and should have respected the feelings of New York; 72)라는 아처 부인의 대사는 외국인과 내부인 간의 구분 짓기를 명확히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아처 부인의 딸이 엘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녀를 뉴욕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역설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공작과 같은 외부인은 스트러더스 부인의 파티에 참석하더라도 뉴욕 사회의 관습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엘렌의 파티 참석은 뉴욕 사회의 관습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관습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지점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구성원인 엘렌이 관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관습이 갖는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렌을 내부 구성원으로 인정한 이상 엘렌의 특이행동을 공동체가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외국성” (foreignness)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이나 “외국적” (foreign)이라는 형용사는 구성원이 뉴욕 사회의 기존 풍토에 낯선 행동을 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방편이다. 엘렌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보이자 엘렌의 이질적인 특징은 더욱 강조된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의 연은 잘살 때면 몰라도 불행이 닥쳤을 때는 깨질 수 없” (the tie between husband and

wife, even if breakable in prosperity, should be indissoluble in misfortune; 224)다고 여겨지는 뉴욕 사회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이혼하고 싶다는 엘렌의 주장은 사회의 관습을 완전히 어기는 결과를 낳는다. 뉴욕 사회에서는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 공동체에 잔존할 수 있기에 아무리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더라도 레퍼츠 부부처럼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그러한 환경에서 별거 중인데도 이혼하고 싶어하는 엘렌은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없는” (You’ ll never be like everybody else; 88) 존재로 인식된다. 결혼 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엘렌의 시도는 내부에서 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기이한 내부 구성원으로 시작된 엘렌에 대한 평가는 엘렌의 이혼 시도 이후 외국성을 지닌 이질적인 인물로, 별거 결정 이후에는 외국인으로 전환된다. 엘렌은 “가끔이라도 탁자 앞에 부인으로 앉아달라” (just to sit at the head of this table now and then)는 남편의 “과하지 않은” (not onerous) 제안을 거절한 시점부터 더 이상 뉴욕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으며(190), 간편하게도 “외국인” 으로 지칭될 뿐이다. 엘렌이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아처 부인이 엘렌 같은 인물이 뉴욕 사교계의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이야기한다(I’ ve always thought that people like the Countess Olenska, who have lived in aristocratic societies, ought to help us to keep up our social distinctions, instead of ignoring it; 213-4). 아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엘렌이 관습을 "무시"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의 행동이 사교계 관습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뉴욕 사회의 관습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평가된 엘렌은 이제 뉴욕 구성원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인식된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 모두 외국인들한테는 똑같이 보이겠지요” (I’ ve no doubt we all seem alike to foreigners; 214)라는 표현은 엘렌을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면서 동시에 엘렌에게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날 자유를 부여한다. 외국인으로서의 엘렌은 공동체의 관습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습의 가치를 존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엘렌의 행동이 특이하기는 할지언정 밋곳 부인이나 에머슨 실러턴처럼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여겨졌을 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익을 위해 기존 사회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뉴욕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남편의 제안을 거절한 엘렌의 행위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난제로 남게 되었다. 엘렌의 “이상 행위”가 기존의 관습과 충돌하는 시점에서, 공동체는 엘렌이 공동체에 남아 있게 하기위해서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엘렌의 선택이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엘렌이 관습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상 엘렌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실질적인 혜택을 거부하고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암묵적인 약속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한 순간 엘렌의 존재는

외국적이라는 표현이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며 엘렌의 외국성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를 느낀 뉴욕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엘렌을 외국인이라고 지칭하고 만다.

하지만 사회의 이러한 시도는 엘렌이 외국인이라는 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뉴욕 사회의 의도처럼 엘렌이 외국인으로 존재했다면 뉴욕에 머물 수 있었겠지만, 엘렌은 뉴욕 공동체의 가치에 깊이 공감한다는 점에서 결코 외국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엘렌의 행동에서는 그녀를 외국인으로 단순히 정의할 수 없는 엘렌의 관습적 면모<sup>20</sup>가 필연적으로 드러난다. 엘렌이 태생적으로 뉴욕 출신이라는 점은 이러한 모순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국적인 유년기 교육과 장기간의 해외 체류 경험은 엘렌의 취향이 특이해지도록 만들수는 있지만 엘렌은 뉴욕인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외국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처와 도피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뉴욕 사회에 남아있고자 하는 엘렌의 태도에 뉴욕 사회는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 뉴욕 사회는 엘렌이 외국인이라는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

<sup>20</sup>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엘렌은 태생적으로 관습적이며, 관습이 제공하는 결과물의 가치를 알고 있다. 제시(Margaret Jay Jessee)는 “엘렌의 가면이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중성이 그녀를 단순화하려는 범주에 문제를 일으킨다” (Ellen’s masquerade is simultaneously passive and active, a doubling that problematizes the simplistic categories to which she’s been assigned; 47)고 지적한다. 그는 엘렌의 가면 그 자체가 이중적이며, “구 뉴욕 사회의 관습적인 규칙에 참여하려는 동시적인 노력이라고 하면서도 바로 그것이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패배적인 무능력” (a simultaneous attempt to participate in the conventional rules of Old New York and a defeated inability to eschew that participation; 48)이라고 분석한다. 엘렌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제시의 지적은 엘렌이 관습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관습에 포함되고 싶어 한다는 울프의 비평과 상통한다(320-1).

필연적으로 엘렌을 배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엘렌에 대한 감정이 심화된 아처가 메이의 마차 안에서 엘렌에게 어딘가로 도망가자고 했을 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엘렌이 이를 거절하는 장면은 엘렌의 관습적인 면모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다(197). 엘렌은 뉴욕을 떠나 피사나 몬테카를로로 도망가더라도 자신에게 뉴욕 사회의 관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메이의 임신 사실이 엘렌이 뉴욕을 떠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 또한 엘렌의 관습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엘렌은 메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처와 도피하려는 생각을 포기하며, 아처가 메이의 곁에 남아 메이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관습적인” 생각을 한다. 뉴욕 사회의 관습을 존중하는 엘렌은 아처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당위적이라고 느껴 자신의 유럽행을 결정하게 된다.

엘렌이 뉴욕 사회의 관습을 준수하지 않는데도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예외적 사실은 관습의 질서를 교란시켰다. 엘렌을 받아들이고 관습을 수정하거나 엘렌을 배척하고 관습을 고수하는 딜레마에 빠진 공동체는 엘렌에게 외국인이라는 표지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엘렌이 외국인이 아닐뿐더러 뉴욕 사회의 관습에 전적으로 반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러한 해결책이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엘렌은 뉴욕 사회를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존중하기 때문에 뉴욕을 떠나게 되며, 이는 관습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엘렌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 3. “관습적인” 메이의 순수함

기존 비평에서는 아처가 관습에 있어 메이와 엘렌을 대조적인 인물로 바라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서는 관습의 위선을 속속들이 깨닫게 된 아처가 1910년에는 구식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관습을 지키는 인물이 된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아처가 관습의 위선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관습을 대하는 메이와 엘렌의 태도를 보면서 관습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딱딱한 규범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라는 거대한 목표 하에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권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처는 관습적이라고 생각했던 메이가 관습을 벗어나는 제안을 하고, 비관습적이라고 생각했던 엘렌이 관습의 보호 아래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습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다.

관습이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아처가 가장 통렬하게 깨닫는 장면은 거대하면서도 작은 관습의 무대가 절정으로 치닫는 엘렌 올렌스카의 송별회 장면이다. 제시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열어주는 가면무도회” (a masquerade by a group of people; Jessee 47)라고 지칭하는 이 송별회는 아처가 파악해온 관습의 다각적 면모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엘렌에게 부여된 외국성이 가장 강조되는 시점 또한 이 송별회이다. 제시의 지적에 따르면 “친척들은 엘렌을 축하한다는 가장 하에 메이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고 엘렌에게 외국성이 강조된 외부인의 역할을 강요” (Under the pretense of celebrating Ellen, the “kinsmen” rally around May and force Ellen into the role of outsider, someone with an emphasized “foreignness” ; Jessee 47)한다. 엘렌의 환송회에 참석한 손님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친척들은 가문의 명성에 누를 끼칠 위험성을 지니고 있던 엘렌이 뉴욕을 떠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엘렌의 출국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웰랜드 가문 사람들과 밉곳 가문 사람들은, 올렌스카 부인이 드디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했다. 그리고 탁자의 중심에 앉은 아처는 그녀가 인기인이 된든지, 그녀의 침묵에 슬퍼한다든지, 그녀의 과거를 옹호한다든지, 가족의 응낙으로 그녀의 현재가 빛나게 된든지 하는 상황이 연이어 조용히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며 놀랐다.

There was nothing on earth that the Wellands and Mingotts would not have done to proclaim their unalterable affection for the Countess Olenska now that her passage for Europe was engaged; and Archer, at the head of his table, sat marveling at the silent untiring activity with which her popularity had been retrieved, grievances against her silenced, her past countenanced, and her present irradiated by the family approval. (148)

“올렌스카 부인이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묘한 방식으로 강조” (the fact of Madame Olenska’s “foreignness” could hardly have been more adroitly emphasized; 276) 한 자리배치에 따라 아처의 왼쪽에 밴 더 루이든 부인이 앉고 오른쪽에 엘렌이 앉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 환송회에서 아처는 자신과 엘렌이 “외국에서나 통용되는 극단적인 연인” (lovers in the extreme sense peculiar to “foreign” vocabularies; 276)으로 비쳤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제 아처의 시선은 이 순진해 보이는 인간 군상들” (all the harmless-looking people)의 위선을 꿰뚫어보고 “말없는 음모자들” (a band of dumb conspirators)의 무대에서 자신이 조연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276).

아처는 손님들이 벌이는 일련의 행동이 있는 그대로의 날것이 아니라 연출된 장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연기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연기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싱리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차용하여 엘렌 올렌스카를 축출하는 조직된 행동이 사회적 지배의 가장 충격적인 예시이며, 이러한 지배가 “얼마나 미묘하면서도 강력한지” (how subtle but powerful manoeuvres) 지적한다(Singley 502). “평온하고 부족함이 없는” (placid well-fed face) 얼굴을 꾸며내고 있는 뉴욕 사교계의 핵심 구성원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상상해 본 적도 없” (nobody knew anything, or had ever imagined anything)다는 표정으로 아처와 엘렌을 갈라놓는데 성공한다(148). 엘렌과 도피하려던 아처의 계획은 이야기를 꺼내어보지도 못하고 빛을 잃게 되는데, 이는 “친구이자 사촌을 사랑해서 송별회를

열어주려는 메이 아치의 자연스러운 소망” (May Archer’s natural desire to take an affectionate leave of her friend and cousin; 276)이 더없이 효과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메이는 “위엄 있게 왕좌에 앉아” (serenely enthroned; 277) 자신이 아치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치가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연극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승리의 환희로 반짝이는” (the glitter of victory) 메이의 눈빛에 의해서 진두 지휘된 송별회에서 아치는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메이의 임신 소식에 좌절되고 만다.

“각 음절로 아치의 뇌를 후려치듯이 분명하고 똑바른 어조로” (in tones so clear and evenly-pitched that each separate syllable tapped like a little hammer on his brain; 282) 전한 메이의 임신 소식은 엘렌과 도피하려는 아치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아치는 침묵 속에서 메이의 곁에 남게 된다. “승리감이 어린 눈물로 젖은 메이의 푸른 눈” (her blue eyes wet with victory; 283)은 관습의 위선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보이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남는다. 이 송별회 장면은 메이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준다. 메이는 관습을 제약적으로 느끼기보다는 관습을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으며, 관습이 보장하는 사회의 경계 안에서 보호받으며 관습을 멋지게 활용한 결과 엘렌을 몰아내고 아치를 획득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뉴욕을 천국이라고 생각해 돌아온 엘렌이 외국인이라는 표지가 붙어 배제되는 과정과 관습의 위선적인 면모를 목격하면서 아치는 관습에 대해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6년 후의

아처는 “훌륭한 시민” (a good citizen; 286)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뉴욕의 인도주의적, 도시행정적, 예술적인 운동에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그의 조언을 구하고 그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 누릴만한 삶” (all a man ought to ask; 286)이었다고 평가 받는다. 아처는 메이의 외모를 닮은 딸 메리 치버스를 소개하면서 메리는 “어머니만큼 관습적이고 지성적이지도 않았지만 더 폭넓은 삶을 영위했으며 더 관대한 관점” (who was no less conventional, and no more intelligent, yet led a larger life and held more tolerant views; 288)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아처는 여성이지만 스포츠와 자선 행위에 열정을 보이는 메리를 바라보며 “새 질서에도 좋은 점이 있기 마련” (There was good in the new order too; 288)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를 긍정하는 아처의 관점에 담긴 메시지는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변화가 공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가능성의 기저에 놓여있는 모순 또한 포용하는 것이 관습의 특징이라는 점이다. 아처는 어떻게 관습의 충격적인 면모를 목격했면서도 관습을 존중하면서 기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명사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지금의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관습과 이에 대응하는 메이의 행동을 그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뉴욕 사교계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웰랜드 가문의 외동딸인 메이는 관습이 정성스럽게 빚어놓은 “사회적 체제의 결과” (the product of the system; 7)로 등장한다. 흰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은방울꽃을 매만지는 메이의 연출된 이미지는

아처로 하여금 “남성 우위에 대한 자부심과 그녀의 한없는 순수에 대한 경외감이 결합된 짜릿한 소유욕” (a thrill of possessorship in which pride in his own masculine initiation was mingled with a tender reverence for her abysmal purity; 6)을 느끼게끔 한다. 순수이 정수처럼 보이는 메이의 이미지는 결혼했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약혼을 발표하던 날 “사냥에서 돌아온 다이아나 여신” (Diana just alight from the chase; 53)처럼 보이던 메이는 결혼한 후에도 “다이아나 여신 같은 초연함” (the same Diana-like aloofness; 173)을 완벽하게 유지한다.

아처는 결혼 전에도 메이의 순수함이 “어머니들, 숙모들, 할머니들과 조상들의 공모에 의해서 교활하게 만들어진” (cunningly manufactured by a conspiracy of mothers and aunts and grandmothers and long-dead ancestresses; 37) 인공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메이의 순수가 한시적이거나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메이의 순수가 지니는 공허함을 파악한다. 메이의 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맑은” (clear; 57) 이나 “투명한” (transparent; 128)이라는 형용사는 역설적으로 메이의 내면적 결핍과 상상력의 빈곤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아처는 메이가 “경험과 다양한 기교, 자유로운 판단력” (the experience, the versatility, the freedom of judgment; 36)을 갖추기를 바라지만, 메이가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인물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아처는 메이가 웰랜드 부인처럼 “상상력에 저항해 마음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거부하는 그런 순수함” (innocence that seals the mind

against imagination and the heart against experience; 119)을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아치의 판단과는 다르게, 관습과 메이와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다. 메이는 자신이 원하는 순간 원하는 정도만큼 “비극적인 용기” (tragic courage; 122)를 발휘해 능동적으로 관습을 벗어난다. 이는 아치와 결혼하기 전 아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점이다. 결혼을 서두르자는 아치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던 메이는 “당신은 나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결혼을 서두르는 건가요?” (Is it because you’re not certain of continuing to care for me?; 120)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곧이어 메이는 아치가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자신과의 약혼을 파기하고 그 상대와 결혼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웰랜드 가 딸의 불가사의”(the prodigy of the Wellands’ daughter)한 제안은 아치가 “지나친 벼랑 같은 위기 상황” (the glimpse of the precipice)이라고 느낄 정도로 파격적이다(122). 결혼하기 전에 긴 약혼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던 메이가 약혼을 깨고 정부와 결혼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다. 아치는 메이가 “무모할 정도로 개방적인 태도에 초인적인 무언가” (something superhuman in an attitude so recklessly unorthodox; 122)가 깃든 여성이라는 점을 발견한다. 메이는 이처럼 관습에 대한 완급 조절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여성인 것이다.

메이에게서 순간의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자신이 거절하자마자 “어쩔 줄 모르는 소심한 처녀” (helpless and

timorous; 123)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메이가 여전히 관습에 얽매어 있다고 생각했던 아처의 판단은 이후 송별회 장면에서 메이가 엘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또다시 예상과 어긋난다. 쉬라이버는 메이가 “자신의 실제 능력과 수행해야 하는 역할 사이의 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기대되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영리하게 행동” (Recognizing the distance between their actual abilities and the roles into which they are to fit themselves, they cleverly behave in ways beyond usual expectations of woman; Schriber 197)한다고 주장한다. 메이가 관습을 “영리” 하게 사용한다는 쉬라이버의 평가처럼, 메이는 관습에 의해 주조된 인물이지만 관습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다. 약혼 파기를 제안했던 시점처럼, 메이는 관습적이지 않은 행동이 필요한 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아처의 허점을 찌른다. 메이는 비관습적인 면모가 필요한 시점과 철저하게 관습적인 면모를 지녀야 하는 시점을 구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송별회에서 아처가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하고 메이에게 굴복한 이유는 메이가 아처의 저항이 불가능한 플롯을 관습의 규칙에 따라 짜두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송별회까지 겪으면서 이제 아처는 메이가 관습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순수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처는 메이라는 인물이 관습에 의해 생산되고, 역으로 관습을 이용하면서도 메이의 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아처는 메이의 순수가 유지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파괴할 수 없는 젊음의 표정이 엄격함이나 바보스러움이라기보다는 원시적이고 순수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218). 끊임없는 훈련에 의해서 순수는 메이의 중심 가치가 되었으며, 메이는 자신의 순수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관습에 순응한다. “오랫동안 빙하 속에 냉동되어 있으면서도 생명을 지닌 몸처럼, 또는 진공 상태에서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존재” (as having been rather gruesomely preserved in the airless atmosphere of a perfectly irreproachable existence, as bodies caught in glaciers keep for years a rosy life-in-death; 42)로 묘사되었던 밴 더 루이든 부인처럼, 26년이 지난 후의 메이 또한 변화를 거부하는 인물로 남아있다. 메이가 변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메이의 순수를 지켜주기 위한 아처와 자녀들과의 “무의식적인 공조” (a joint pretense of sameness)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에서부터 메이를 보호하려는 “순진한 가족의 위선” (innocent family hypocrisy)은 메이의 어린 시절이 붕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와중에도 그녀가 “세상을 사랑이 넘치고 조화로운 가정으로 가득한 좋은 곳” (thinking the world a good place, full of loving and harmonious households; 287)이라고 믿으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처는 메이가 변화에 무지했다고 해서 전통과 관습을 고수했던 메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메이가 죽는 순간까지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믿으며 삶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메이의 순수를 지켜내는데 일조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

메이에게 지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관습의 이러한 장점은



누구보다도 엘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엘렌이 뉴욕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순수와 미덕, 그리고 구 뉴욕 사회를 갈망했기 때문이다. 뉴욕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았을 때, 엘렌은 “뉴욕은 내게 자유이자 평화였어요. 저는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죠. 동족과 함께 있어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착하고 친절하며, 저를 만나는 걸 반긴” (New York simply meant peace and freedom to me: it was coming home. And I was so happy at being among my own people that everyone I met seemed kind and good, and glad to see me; 76)라고 느낀다. 이처럼 엘렌은 관습이 보호해주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 얼마나 평온하고 안락한지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그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할지언정 자신이 그 관습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엘렌은 관습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는 없지만 메이가 구현하는 순수의 가치를 이해하며 이를 지켜내는 관습의 영향력 또한 받아들이기에 사랑하는 아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떠나는 편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관습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이 희생된다면 관습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던 엘렌의 희생을 보여준다.

관습이 지켜냈던 메이의 가치와, 관습을 지켜내고자 했던 엘렌의 희생은 이들의 숨은 노력을 알고 있는 아처에 의해서 완성된다. 아처는 메이의 순수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엘렌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증인이다. 한때 관습이 아처를 “질식” (suffocate)시킬 듯 위협적이었다고 해도, 아처는 “구 뉴욕 사회의 편협한 세상에서 달아날 수 없기에 그 사회에 대한 기억을 무언가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환” (he cannot

flee the provincial world of old New York; he must learn to transmute it into something valuable)시켜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Wolff 314). 아처는 메이가 관습의 정의하는 공동체의 내부에 존재했기에 그녀의 순수가 지켜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순수가 인위적으로 창조되기는 했지만 메이를 이루고 있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이해한다. 아처는 1890년대의 뉴욕 공동체가 붕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변화의 물결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관습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아처는 구 뉴욕 사회의 관습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명백히 유지되고 있었을 뿐 절대적 윤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구성원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음을 메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워튼이 구상했던 세가지 결말을 탐구했던 프라이스는 워튼이 예상했던 결말은 모두 사회적으로 의심받는 올렌스카 백작부인이 뉴욕에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처와의 성공적인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결말로 끝난다고 지적한다(Price 23). 어떤 결말에서도 워튼이 아처와 엘렌의 행복한 결합을 그려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작중 인물들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서만 존재하는 무언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멀어질 수 밖에 없었던 두 인물의 필연적인 관계를 그려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아처와 엘렌이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완성될 수 있는 무언가, 메이가 향유하고 엘렌이 갈망했던 무언가를 정의하자면 뉴욕 사회의 관습이 만들어낸 결과인 순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의 시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순수하게 인물들의 핵심

가치가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 봤을 때 순수로 그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메이는 아처가 델러스에게 그의 부모들의 삶을 형성했던 원칙과 편견을 계속 가르칠 것이고, 아처가 죽더라도 델러스가 이를 받아 어린 빌에게 이를 전수할 거라고 확신하며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다. 메이는 사회 밑바닥에 존재하는 빈곤이나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이 밝고 긍정적인 곳이라는 막연하면서도 희망적인 개념을 지닌 채 죽음을 맞이한다(286-91). 메이의 죽음은 개인을 보호하고자 한 공동체 관습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존재한다. 아처는 메이의 순수가 지니는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가 보장하는 순수를 갈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엘렌의 노력 또한 알고 있다. 엘렌은 이질적인 인물일지언정 관습을 파괴하거나 뒤흔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의미를 알고 있기에 공동체에 진입을 시도했던 것이며, 자신이 공동체에 들어서는 것이 관습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관습이 제공하는 순수를 얻지는 못할지언정 견고하게 지켜내고자 희생하는 편을 택한다.

울프는 개인에게 전통과 관습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논하면서, 전통은 개인을 관습의 틀에 맞게 구조하면서도 개인에 의해 재구조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회적 변화가 완전한 성장을 얻어내려는 개인의 노력과 불가피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변화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개인의 성장 배경이 되는 관습과 전통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다” (since social change is

inevitably tied to the individual struggle to achieve maturity, social change is, ironically, always rooted in the past; no man can achieve maturity until he has accepted the particular conventions and traditions that have shaped him; Wolff 313-4)고 주장한다.

“사람은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선택할 수 없다” (he cannot choose his heritage; Wolff 314)는 울프의 평가처럼, 아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뉴욕을 부정할 수 없다. 메이의 삶과 엘렌의 결정을 존중하는 아처의 시각에서 그려지는 1910년대의 뉴욕은 메이와 엘렌, 아처 세 인물만이 완성할 수 있는 순수의 시대를 그렸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초반부에 아처는 메이와 엘렌이 관습에 대응하는 방식이 상반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작품이 진행되면서 두 여성인물이 각자의 방식으로 관습을 활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루이스는 이 작품이 “사회 일족이 가하는 무언의 제재 권력과 개인의 열망 간의 가망 없는 투쟁” (the losing struggle between individual aspiration and the silent, forbidding authority of the social tribe; Lewis ix)을 소재로 삼는다고 평하지만, “방관자” (an onlooker; Wolff 315) 아처의 눈에 비친 엘렌과 관습, 메이와 관습의 관계는 “가망 없는 투쟁”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관계가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다. 엘렌이 배제되는 과정이 거대한 관습 권력의 세밀한 조작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관습의 위선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고, 메이의 주도로 개최된 송별회에서는 공동체의 관습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워튼은 관습이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모순을 그려내고 있으며, 관습과 인간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관찰자 아처의 시선을 통해 담아냄으로써 “그가 자라온 작은 세계에 무엇이 남았으며, 누구의 기준이 그를 속박했는가?” (What was left of the little world he had grown up in, and whose standards had bent and bound him?; 290)라는 질문이 현재에도 유의미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 질문에 대한 아처의 해답이 결국 엘렌을 만나지 않도록 결심하게 한 “사실”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인지한다면, 이러한 해답을 이끌어낸 워튼의 의도가 아처가 관습의 추상적인 특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관습에 부여하는 직접적인 의미를 탐구하게 함으로써 관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근본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습에 대한 아처의 해석이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관습의 양면을 발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양면적인 위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유지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워튼의 의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그 지방의 관습』의 언딘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괴물 같은 존재이지만, 결코 공동체에서 배척되지는 않는다. 뉴욕의 관습은 언딘을 공동체의 경계 내부에 끌어들이고자 노력한다. 언딘의 행보는 이질적이지만, 언딘이 공동체 진입의 필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에 언딘을 배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언딘이 새로운 공동체에 진입하는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하기에 언딘의 남편은 언제나 기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인물이다. 기존 공동체에서 언딘의 남편을 내보내지 않는 이상 언딘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에 안착하게 된다. 또한 언딘이 사회적인 성공의 기준을 매번 달성하기 때문에 부와 지위에 대한 언딘의 성취를 부정할 수도 없다. 언딘의 성취를 부정하는 순간 기존 관습이 지켜왔던 일관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언딘이 결혼 관습을 이용해서 전복성을 발휘할 때, 관습은 언딘을 받아들이거나 기존 관습을 수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뉴욕 사회는 언딘을 공동체에 포함시켜 기존 관습을 더욱 강화하는 편을 택한다. 언딘이 공동체의 경계 밖에 존재한다면 공동체를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지만, 언딘을 포섭한 이상 관습은 언딘의 전복성을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딘을 동경하는 여성들은 언딘의 성취를 좇기 위해 기존 관습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유지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순수의 시대』의 결말에서 아처는 뉴욕 사교계를 혐오하지

않고 구 시대의 관습을 존중하는 훌륭한 시민으로 남는다. 마치 언딘처럼 관습을 전용하던 아처가 관습을 존중하게 된 이유는 그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인물들이었던 엘렌과 메이가 관습을 대하는 방식을 관찰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엘렌의 입성을 임시적으로 환영했던 사교계는 엘렌의 비관습적인 행동을 대처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엘렌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뉴욕 공동체는 임시방편으로 엘렌에게 외국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종내에는 엘렌을 배출한다. 아처는 엘렌을 배출하고자 마는 공동체의 무자비함에 몸서리치지만, 결국 메이의 곁에 남기로 선택한다. 아처는 메이의 곁에 남으면서 메이의 순수가 인공적인 결과일지언정 부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깨달음은 관습의 가치에 대한 아처의 이해를 심화시킨다. 메이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서 아처는 왜 엘렌이 뉴욕에 돌아왔던 건지, 그리고 왜 유럽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렸는지 공감하게 된다.

『그 지방의 관습』의 언딘과 『순수의 시대』의 아처는 정반대의 인물인 듯 보이지만, 워튼이 두 작품을 집필하면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관습은 언딘을 경계 내부에 포용하고 엘렌을 경계 외부로 배척하면서 기존 공동체를 지켜낸다. 이러한 결정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닿아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습의 전능성을 입증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습이 영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기에 의미를 갖는다. 관습은 독자적인 권력을 발휘하는 듯 보이지만, 관습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것은 다름아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순수의

시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관습은 너무도 허무하게 변해버리지만, 사회의 관습이 취하는 형태는 변했을지라도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관습의 핵심 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다. 워튼의 관습에 대한 연구는 인물 중심의 분석에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의 워튼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뉴욕 상류 사회 관습의 시·공간적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구성원을 선별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관습의 역학을 탐구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Works Cited

- 이정우.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2009.
- Addams, Jane. *Democracy and Social Ethics*. New York: Macmillan, 1902.
- Ammons, Elizabeth. *Edith Wharton's Argument with America*. Athens: U of Georgia P, 1980.
- Bentley, Nancy. *Ethnography of Manners: Hawthorne, James, Wharton*.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Bloch, Ruth H. "Untangling the Roots of Modern Sex Roles: A Survey of Four Centuries of Change." *Signs* 4.2 (1978): 237-52.
- Bourdieu, Pierre. *The Logic of Practice*. Trans. Richard Nice. Stanford: Stanford UP, 1980.
- Bruni, John. "Becoming American: Evolution and Performance in Edith Wharton's *The Custom of the Country*." *Intertexts* 9.1 (2005): 43-59.
- Campbell, Donna. "Naturalism." *Edith Wharton in Context*. Ed. Laura Rattray. Cambridge: Cambridge UP, 2012. 353-64.
- Collins, Patricia Hill.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Routledge, 1991.
- Daigrepoint, Lloyd M. "The Cult of Passion in *The Age of Innocence*." *American Literary Realism* 40.1 (2007):

1–15.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1995.

---.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1990.

Gibson, Mary Ellis. “Edith Wharton and the Ethnography of Old  
New York.”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3.1 (1985):  
57–69.

Gilman, Charlotte Perkins. *Women and Economics*. 1898.  
Boston: Dover, 1997.

Grant, David. “Trusting America: Undine Spragg's  
Revolutionary Break in *The Custom of the Country*.”  
*Canadi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46.1 (2016): 86–  
115.

Hartman, Mary and Lois W. Banner. *Clio's Consciousness  
Raised*. New York: Harper, 1974.

Hepburn, Allan. “A Passion for Things: Cicerones, Collectors,  
and Taste in Edith Wharton's Fiction.” *Arizona  
Quarterly: A Journal of American Literature, Culture,  
and Theory* 54.4 (1998): 25–52.

Herman, Sondra, R. “Loving Courtship or the Marriage Market?  
The Ideal and Its Critics 1871–1911.” *American  
Quarterly* 25.2 (1973): 235–52.

Jessee, Margaret Jay. “Trying It On: Narration and Masking in

- The Age of Innocence.*”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36.1 (2012): 37–52.
- Kelley, Mary. “The Sentimentalists: Promise and Betrayal in the Home.” *Signs* 4.3 (1979): 434–46.
- Lewis, R. W. B. *Edith Wharton: A Biography*. New York: Harper, 1975.
- Lindberg, Gary H. *Edith Wharton and the Novel of Manners*. Charlottesville: UP of Virginia, 1975.
- Macheski, Cecilia. “The Novel of Manners.” *Edith Wharton in Context*. Ed. Laura Rattray. Cambridge: Cambridge UP, 2012. 344–52.
- Malinowski, Bronislaw.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New York: Harcourt, 1932.
- McDowell, Margaret B. “Viewing the Custom of Her Country: Edith Wharton’s Feminism.” *Contemporary Literature* 15.4 (1974): 521–38.
- Patterson, Martha H. “Incorporating the New Woman in Wharton’s *The Custom of the Country*.” *Studies in American Fiction* 26. 2 (1998): 213–36.
- Pizer, Donald. “Introduc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merican Realism and Naturalism: Howells to London*. Ed. Donald Pizer. Cambridge: Cambridge UP, 1996. 1–30.
- Price, Allan. “The Composition of Edith Wharton’s *The Age*

- of *Innocence*.” *The Yale University Library Gazette* 55 (1981): 23–8.
- Rubin, Larry. “Aspects of Naturalism in Four Novels by Edith Wharto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2.4 (1957): 182–92.
- Sassoubre, Ticien Marie. “Property and Identity in *The Custom of the Country*.” *Modern Fiction Studies* 49.4 (2003): 687–713.
- Schriber, Mary Suzanne. “Convention in the Fiction of Edith Wharton.”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1.2 (1983): 189–201.
- Singley, Carol J. “Bourdieu, Wharton and Changing Culture in *The Age of Innocence*.” *Cultural Studies* 17 (2003): 495–519.
- Tuttleton, James W. *The Novel of Manners in America*. New York: Norton, 1974.
- Veblen, Thorstei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899. New York: Macmillan, 1908.
- Vinogradoff, Paul. *Custom and Right*. Oslo: Aschehoug, 1925.
- Voloshin, Beverly R. “Exchange in Wharton’s *The Custom of the Country*.” *Pacific Coast Philology* 22.1 (1987): 98–104.
- Welter, Barbara. “The Cult of True Womanhood: 1820–1860.” *American Quarterly* 18.2 (1966): 151–74.

Wharton, Edith. *The Age of Innocence*. 1913. New York:  
Penguin, 1996.

---. *The Custom of the Country*. 1920. New York: Bantam  
Dell, 2008.

Wolff, Cynthia Griffin. *A Feast of Words: The Triumph of Edith  
Wharton*. Oxford: Oxford UP, 1977.

Abstract

# "The Country of the Custom" :

Edith Wharton's *The Custom of the Country*

and *The Age of Innocence*

Nyoung Heo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the custo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stom of the Country* and *The Age of Innocence* by Edith Wharton, especially focusing on its reflective aspect. Previous criticisms have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s and thus considered the custom as byproduct of the society. This thesis, however, assumes that the

custom is not a mere social contract but flexible power that defeats inner subversiveness by reforming the customary criteria and allows Archer, the witness of expulsion of Ellen, to recognize the meaning of the society. This thesis concentrates on how nineteenth century New York high society custom was able to maintain the community through subsumption and conciliation.

The first chapter suggests that the custom has succeeded in maintaining the high New York society through its deliberate manipulation of social criteria. Initially regarded as an invader, Undine takes advantage of the marriage custom as a method of entering new community. Undine beats the marriage custom at its own game with her potential subversiveness; she has a controlling effect on male characters and performs the role assigned to male members only. Against Undine's threat to overthrow, the society wins over Undine by making her deviation socially acceptable and creating myth around Undine only to secure the community under the reign of the custom.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the struggle of the custom to maintain its purity by screening its new member. Ellen returns to New York society from Europe looking for comfort, but she fails to comply with established social code due to her experience

abroad. The exceptional situation Ellen produced causes disturbance in the usual pattern of the community. As a temporary alternative, the society decides to label 'foreigner' to Ellen in order to her presence does not interrupt the rule of community, which drives her out of New York for that label does not accord with her native identity. Archer, reflecting on the reason why Ellen left him, becomes to appreciate the value of innocence that May preserves within the boundary of the society.

Through her two novels, *The Custom of the Country* and *The Age of Innocence*, Wharton demonstrates that the custom of New York high society in the latter half of the 19<sup>th</sup> century is not a dead tradition; the community interacts with the individuals actively as well as reflects their defiance within the custom. Even though the characters try to squeeze in its weakness, it is the custom that individuals are to be immersed in thoroughly in the end.

**Keywords :** Edith Wharton, *The Custom of the Country*, *The Age of Innocence*, Custom, Subversiveness, Innocence, Society

**Student Number :** 2015–20057